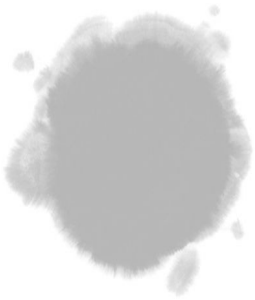
정책보고서 2011-

『

』

2011　12　20



2011 12

Contents

…… 3

1 …… 11

1 …… 11

2 …… 12

2 『 』 …… 17

…… 17

1 …… 17

2 …… 20

3 …… 67

1 ・ …… 67

2 …… 125

4 …… 185

1 …… 185

2 …… 211

3 …… 234

4 …… 253

5 …… 276

6 …… 291

7 …… 310

5 …… 337

1 …… 360

< 2-1> 「 」 18
< 3-1> 70
< 3-2> · 72
< 3-3> , 73
< 3-4> , 73
< 3-5> , 74
< 3-6> , 74
< 3-7> 75
< 3-8> 75
< 3-9> , 76
< 3-10> , 77
< 3-11> 77
< 3-12> 78
< 3-13> 79
< 3-14> 80
< 3-15> 83
< 3-16> , 84
< 3-17> 85
< 3-18> 86
< 3-19> 87
< 3-20> (1 5 1) 88
< 3-21> (, ,) 90
< 3-22> (, ,) 91
< 3-23> 93
< 3-24> 96

Contents

< 3-25> 98
< 3-26> 98
< 3-27> 101
< 3-28> 104
< 3-29> 105
< 3-30> 106
< 3-31> , 107
< 3-32> , , , 107
< 3-33> , 108
< 3-34> 109
< 3-35> 109
< 3-36> 110
< 3-37> 110
< 3-38> 111
< 3-39> 111
< 3-40> 112
< 3-41> 113
< 3-42> ( ) ( ) 115
< 3-44> 145
< 3-45> , 1991~2010 147
< 3-46> , 148
< 3-47> 149
< 3-48> 153
< 3-49> 155
< 3-50> 156
< 3-51> 167
< 3-52> 168

< 3-53> 171
< 3-54> 173
< 4-1> 188
< 4-2> 190
< 4-3> · 190
< 4-4> (2010) 191
< 4-5> 194
< 4-6> 195
< 4-7> 196
< 4-8> 200
< 4-9> 235
< 4-10> 10 235
< 4-11> 236
< 4-12> 237
< 4-13> 237
< 4-14> 255
< 4-15> : 45~49 256
< 4-16> 257
< 4-17> 259
< 4-18> PIR, RIR 278
< 4-19> 279
< 4-21> 283
< 4-22> 295
< 4-23> 296
< 4-24>
298
< 4-25> 301

< 4-26> 314
< 4-27> 325
< 5-1> 338

[1-1] 13
[3-1] 69
[3-2] (vs. & vs.) 114
[3-3] IPA 117
[3-4] IPA 118
[3-5] 146
[3-6] 148
[3-7] 149
[3-8] 151
[3-9] 152
[3-10] 158
[3-11] 159
[3-12] 160
[3-13] 160
[3-14] 161
[3-15] 162
[3-16] 163
[3-17] 164
[3-18] 164
[3-19] 165
[3-20] 166
[3-21] 167
[3-22] 170
[3-23] 171
[3-21] 173

Contents

[3-25] 174
[3-26] 174
[3-27] 175
[3-28] 176
[3-29] 176
[3-30] 177
[4-1] OECD : 1986, 1996, 2006 186
[4-2] OECD : 1986, 1996, 2006 186
[4-3] 187
[4-4] 45 187
[4-5] 189
[4-6] 205
[4-7] 207
[4-8] 211
[4-9] 225
[4-10] 228
[4-11] 234
[4-12] 238
[4-13] 252
[4-14] (2010, %) 253
[4-15] (2010, %) 255
[4-16] Health Plan 2020 261
[4-17] 264
[4-18] 267
[4-19] 「 21」 270
[4-20] 276
[4-21] 282

[4-22] 291
[4-23] 296
[4-24] 306
[4-25] 308
[4-26] 309
[4-27] 310
[4-28] 333

Abstract

Policy Response to the Retirement and Ageing of Baby Boomers

1. 연구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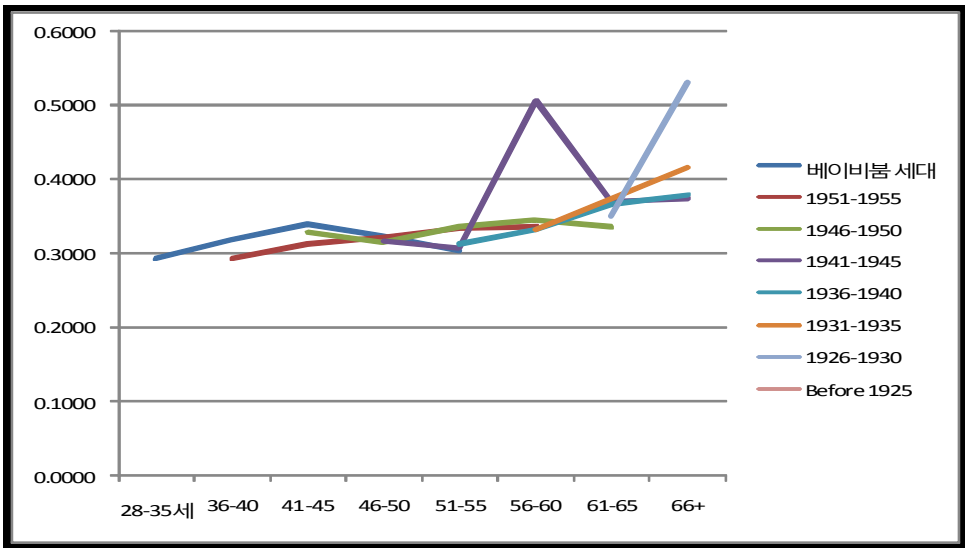
「 」 ～

○

○

—

[ ]


0.6000
0.5000
0.4000
0.3000
0.2000
0.1000
0.000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

—

—

○

—

•

○

—

01

KIHASA

1

제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고

용기회 제고,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건강한 노후생활, 주거의 안정, 적절한 노년기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 』

[1-1]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내용
•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제고 및 방안모색 •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응 능력 제고 방안 모색	• 베이비 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교환 및 공론화 • 관련 자료조사 재분석 및 사례조사 • 해외사례 통한 자료수집 •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 베이비 부머의 고용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적절한 노년기설계를 위한 서비스제공 방안 •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02

KIHASA

2 『 』

「 」

제1 절 개요

「 」

「 」

「 」

「 」

~

~

「 」

< 2-1> 「 」

1	.	
2		
3		
4 4 29		

5 5 30		
6 6 21		
7 9 2		
8 9 30		
9 10 28		
10 11 25		
11 12 16		

제2절 주요 내용

1. 1 : , ?

.

1) (: ,)

「

」

21

2

.

2) · (: ,)

.

2. 2 : -

「

」 「

」

25

2

.

. . . . .

.

① ② ③

④

『 』

3. 3 :

27

2

.

1) (: ,)

.

.

.

2) (: ,)

→

.

~

~

4. 4 : -

-

.

1) (: ,
)

.

. .

33

2

2) (: ,)

`• `í ƒFuE sÚƒMa gÑ• vþt• ƒEZy kmYîb ZÍ uùÑ •¶nÊ[=u Zé u}t½ön™ [åg™ZÍ uiu}
g™gi sÝZ±ƒMp uù• ue,ñeit- w-sÚh™„yuE uew-a±t- pÍf• gi Yíw-ZÍ uù• `í ƒFua w-
sÚh™„ygi tñƒI Zâƒ¹„I aÆE ui„Eu)fI uæÙƒI sÚƒM1 uepÊƒEZÍ Z „AƒMƒ1t• Yí uùÑ
t• o uabÑ\ ZíbÑuE j• ual1 kmh%bÑs½`í ƒI uepÊu1 Z o ƒEZÍ uabÑua vþ`u'_1|" ua
uauñs½ZÍu ƒI €¦o u1 w-`¹ j• ual1 k} o%í ei`• uýu1 ZÍf ƒEsÙ uas½uîuõƒI h•w¾ñe¢
Zé ,ñfI [åe• Z j u1 h•n¶ƒasi ƒI`Ñ

w-sÚh™„y _ €¥¹ ~YZ „Agi tñƒa j• ual1 kmh%bÑuE w-g™uî uew-uî uþ[éo u1 _•ua
tñƒao `• w-sÚh™„y u}t½ön™iü [=u Zíf \ ZíbÑZéuE \! ií ƒI €ù€¥ˆõpÚu1 [Y{, ƒMƒ1
t• Yí uuu)h] uagi •¢ƒa ,ñfI [åe•uE n®„% [=gÈ• i) fM z%sÙu}bÑu1 `í n®u)fI ƒÈ•
UHHUDOV\ WMPa± [Y{, ƒMƒ1t• Yí uùÑ v s5ƒI w-u}z¡ vþpÙuE pÉµs¡uñ%u}t½ön™o)
• h•„ s½a a± w-u}z¡Yí w-sÚh™„yuE uñ%w®u-•áu}bÑu1 j [aƒEZÍ u o ƒÈ• aÆÉs½
uabÑu1 w-sÚh™„yuE u Zí\ ZíbÑZé ƒþf ƒEZy ƒUu)fI qUu-•áu}bÑuE uñ%u}t½ön™„ aÆE1
Yî' ƒEZy ƒI`Ñ

v z2 iü pÑz%uñe¢ h•n¶u1 tñƒI sÝ[Yt- ƒñ„Vs½`í ƒI v „BƒI •¢Z±u}f¹ Yí t• [Yb `•
a] n®í uîu)fI u÷u- |" ua^…_eueb Ñ uE u}t½ön™„ aÆs½l1ƒa vþu'_1|" €¦…uj• ual1
kmh%bÑuE u}t½ön™„ aÆs½ZíƒI sÝ[YYí iå…ƒÈÑ uabÑuE €¦o Zé u}t½ön™s½`í ƒI ue
pÊZé aÆ u}t½ön™gi ƒEw- s7u- uau …gÊƒÈ• u}t½ön™„ aÆsîsÚ bÞ uabÑu1 `í
n®u)fI ƒI v]n™sÝ[Y`• i) fM `í s½_•u- u}t½ön™u} l1u u1 jáuàÑYí ua„±km• `•
[å l1u ua Yýoyƒ È• {• o%DJHLQJ HIHFVs½Z ueuî | hau- i) fM n™„y i%„A v a±uî
| habÑua s¡c•ƒI sîƒ'u1 iå|EZÍ uù• w-gi te[ZZéuE l1[= ZÍz u1 •¢ƒao [Yz¡uîuaZÍ
pÙa± uù• sÝ[YYí b'c eisi ƒMZpuàÑ j• ual1 kmh%bÑuE u}t½ön™gi „I o „AƒÈ tñ
ƒao `• ƒñ„Vs½`í ƒI •¢Z±u}f¹ Yí v „Bƒasi ƒUs½a± ku[YƒEZÍ `Ñs~ƒI \ Zís½a v Zâo
`• •¢Z±u}f¹ bÑua ƒñuíƒI z uagi jáuaZÍ uù c9%s½uas½`í ƒI uñj uîue Zm• Yí ƒ1
t• ƒÈÑ v z2Zé uñe¢u1 p gªƒÈ tñƒao `• ƒñ„Vs½`í ƒI v „BƒI €ŷÕua ƒ1 „BƒI € "†×O

Z]

÷
&Ë
›
ç
•
W
&G
1K
fG
7G
•
5«
%'
G
‡
Ï
'I G
+œ
!o
G
€
4ü
%G
Ã

2) (: ,)

39

2

3) (: ,)

. .

. .

.

.

. .

41

6. 6 :

2

.

1) (: ,
)

2) (:
,)

.

.

.

7. 7 :

.

1) (: ,)

2) (: ,
)

47

2

8. 8 :

.

1) (: ,
)

.

2) (: ,
)

51

2

.

9. 9 :

.

1) (: ,
)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동 현황과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부터 노년기까지 아우르는 이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실천적, 정책적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평일 3.58시간, 휴일 6.56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 4.93시간, 휴일 8.17시간으로 평일과 휴일 모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내에서도 특성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평일에는 여자의 여가시간이 남자보다 많지만(여자:3.78시간, 남자: 3.37시간), 휴일에는 남자의 여가시간이 여자보다 많다(여자:6.37시간, 남자:6.76시간). 베이비 부머의 월 평균 여가비용은 175.74천원이나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하층은 112.14천원, 중층은 171.86천원, 상층은 278.2천원으로 소득수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3%), 스트레스해소(21.0%), 즐거움(20.0%), 건강(17.9%)의 순서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동 실태 유형별로 1순위 여가유형을 살펴보면, TV시청(60.0%)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낮잠(4.6%), 신문/잡지 보기(4.2%), 등산(3.0%), 산책(2.7%), 라디오 청취(2.5%), 독서/만화 보기 및 애완동물 돌보기(2.1%) 등이다. 현재의 여가활동과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비교해보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의 경우 문화예술관람이 영화관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자아실현적 문화예술활동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용 관련 욕구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4로 다소 불만족하고 있다.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의 69.4%가 현재 여가활동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는 이보다 높은 83.7%가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 여가활동에 있어 공공시설(37.0%)보다는 민간시설(59.6%)을 더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38.8%)보다는 민간시설(48.4%)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하면, 베이비 부머의 욕구수준이 높은 여가활동 영역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여가시간활용, 여가비용, 여가목적, 여가활동 유형, 여가패턴 등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한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

후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접근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가활동의 동기 및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실천의지의 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여가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 향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 ,)

현재 노인 복지관은

55

2

.

10. 10 :

.

1) (: ,
)

2) (: ,
)

.

58

.

.

.

11. 11 :

「 」

.

1) (: ,
)

61

2) (: ,)

2

63

2

03

KIHASA

3

「 」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 욕구 및 대응 전략

여가를 의미하는 레저(leisure)는 '구속받지 않는', '평화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리세레(licere)와 "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그리스어 스콜레(schole)에서 유래되었다. 즉, 여가는 자기의 업무나 일상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평화롭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여분의 여(餘)자와 한가한 가(暇)자를 결합하여 '여분의 한가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이장영 외, 2004).

여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24시간에서 노동 시간, 수면이나 식사 등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생리적 필수시간, 그리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기타의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하며(Murphy, 1975; Parker, 1976),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휴식, 기분 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또한 활동의 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관적 판단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느끼는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McGuire et al., 1996).

개인의 여가활동은 생애에 걸쳐 지속성과 변화라는 상반된 패턴의 궤적(trajectory)을 보인다. 지속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역할 상실을 자신이 했던 비슷한 형태의 역할로 대치하려고 하거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 과거의 성격이나 경험과 연관시켜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 패턴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Hooyman & Kiyak, 2005). 이러한 지속이론의 관점을 여가활동에 적용해 보면, 중장년기의 여가 경험이 노년기 여가활동의 내용과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berts(2006)는 한 개인의 여가가 생애 과정을 통해 강력한 지속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면서, 은퇴 이후 여가활동이 감소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었을 때 여가에 대한 관심 범위가 한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장년기에 여가활동이 활동적이었다면 노년기에도 활동적일 개연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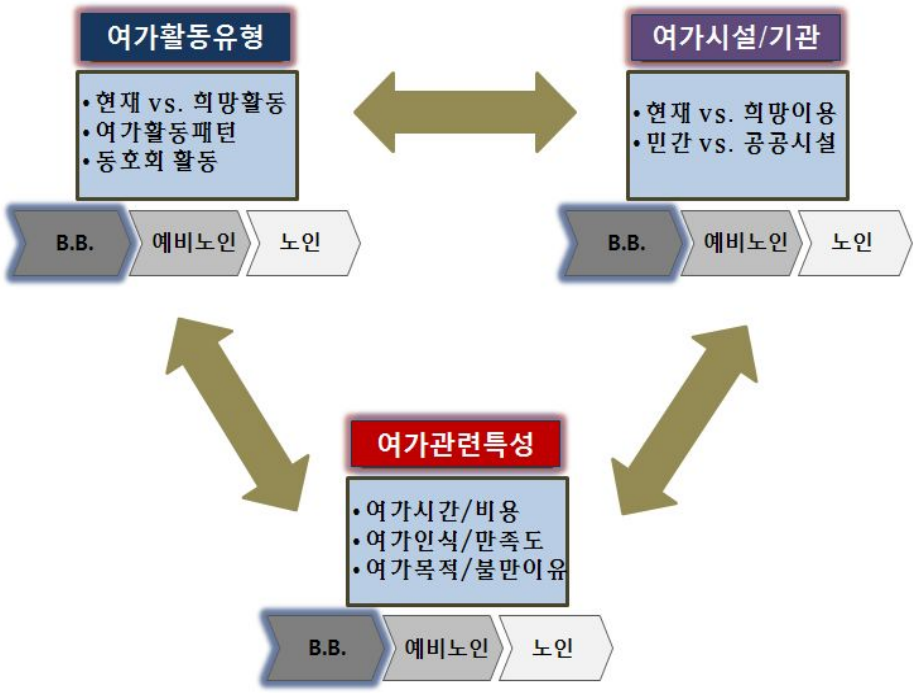
반면에 여가활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가 경험을 추구하며, 생애에 걸쳐 여가활동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고 한다(Iso-Ahola, 1980).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여가활동의 변화는 점진적이거나, 기존 여가활동의 레퍼토리(repertoire)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가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킨다(Hooyman & Kiyak, 2005). 이처럼 노년기 여가활동의 변화 패턴은 급격하거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띄기 보다는 중장년기 때의 여가활동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장년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문화 활동 현황과 참여 욕구를 분석하여 이들의 노년기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제반 특성과 여가활동 유형, 그리고 여가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1] ·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 여가활동을 비교 고찰하였고, 여가활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현재 여가활동 유형을 토대로 동질형, 중복형, 혼합형의 여가활동 패턴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동호회

활동 여부 및 목적, 동호회 소속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 시설 및 기관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가 시설과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 여가 시설을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가 시설을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향후 이들이 시간적 변화 궤적에 의해 예비노인 및 노인이 되어 가면서 보여주는 여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노인세대(56세-64세)와 노인세대(65세 이상)를 함께 비교하였다.

.

1) 질적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의 은퇴 이후 여가생활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지닌 60대 초·중반의 예비노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은퇴 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에 근접해 있는 기관 이용자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4곳의 노인복지관 실무자를 통해 각 각 2명씩 소개받아 총 8명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 3-1>

(2) 자료수집 및 면담 가이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4 곳의 노인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이 진행되었으나, 부부의 경우 함께 면담을 하였고, 참여자 G와 H는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함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개인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이를 녹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담은 ① 40대와 50대의 여가실태 및 여가인식, ② 은퇴 이후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현황(경제활동이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③ 4,50대와 현재에 여가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④ 현재의 여가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2) 양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에 실시한「국민여가활동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여가 수요 및 활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흘에 걸쳐 실시된 것이다. 전체 응답자 3,051명 중 베이비붐 세대(1963년생-1955년생)는 525명, 예비노인세대(1954년-1947년생)는 350명, 노인세대(1946년 이전)는 634명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① 여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의 의미, 가치인식, 동기, 목적 등, ②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활동 유형,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설, 동반자 등, ③ 여가활동의 영향력 평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생활 변화, 영향력 평가, 그리고 ④ 여가환경; 여가활동 촉진 요인 및 방해 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

1)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베이비 부머는 총 525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84% 가량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졸(39.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31.8%)와 대졸 이상(28.4%)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서는 중류층(월 가구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이 4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노인의 경우는 베이비 부머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교육 수준에 있어 중졸 이하가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세대는 여성의 비율이 57.9%로 남성에 비해 15% 가량 더 많았고, 배우자 사별 비율도 38.6%로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이 81.4%, 가구 월 평균 소득도 200만 원 이하로 소득 수준이 '하'인 경우가 76.3%를 차지해 다른 세대보다 비해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

		(1963~1955)		(1954~1947)		(1946)		((%)		χ^2

2) 여가 특성 및 욕구

베이비 부머의 여가 특성 및 욕구를 하루 평균여가시간(평일 vs 휴일), 희망여가시간(평일 vs 휴일),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여가의 목적과 여가 불만족 이유 등에 따라 살펴보면서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의 제반 특성과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3-3>은 세대별 하루 평균 여가 시간 및 희망 여가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 부머는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으로 3.58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휴일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6.56시간을 여가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과 휴일 모두 현재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활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3> ,

						F

< 3-4> ,

		( )				( )			
			t		t		t		t

평일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더 많지만, 휴일에는 남성의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여가시간에서도 평일에는 여성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는 반면에, 휴일에는 남성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전기 베이비 부머가 후기 베이비 부머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일에는 평일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시간을 여가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에는 현재보다 약 1시간 21분 정도(남성:1.28시간, 여성:1.48시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현재보다 약 1시간 37분 정도(남성:1.57시간, 여성:1.64시간) 더 많은 여가시간을 희망하고 있었다.

< 3-5> ,

					F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여가시간은 교육 수준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휴일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여가시간도 현재여가시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6> ,

					F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하'인 경우가 '중' 혹은 '상' 보다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휴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상'인 경우가 '하'나 '중'인 경우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에 따르면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별로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여가 활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 3-7>

			( )	t

→

평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3-8>

				F

→

조사 대상자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 수준이 '중'인 응답자(평균 3.51)가 소득 수준 '상'인 응답자들(평균 3.36)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 3-9> ,

		( )	( )

남성의 월 평균 여가 비용(약 22만 2천원)은 여성(약 13만원)보다 약 9만 2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성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의 희망여가비용은 약 33만 6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11만 3천원을 여가 비용으로 더 사용하기 원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희망여가비용은 약 22만7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9만 7천원을 추가적으로 더 소비하고자 하였다.

전기와 후기 베이비 부머는 월 평균 여가비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희망여가비용에서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 보다 약 1만 7천 원 가량 더 소비하기를 원하고 있다.

< 3-10> ,

		( )	( )

소득 수준 '상'의 경우 월 평균 여가 비용이 약 27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11만2천원보다 약 15만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소비하고 있었다. 희망여가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비용보다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고 싶어 하며, 소득 수준간의 희망 여가비용 차이는 현재의 여가비용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중류층'에서 좀 더 많은 여가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11>

				t

→
→
→
→

베이비 부머들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볼 때, 여가인식은 시간, 비용, 여가생활 만족도 및 행복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 비용에 대한 생각에서는 5점 척도(1: 매우 충분함, 5: 매우 부족함)에서 평균 3.69로 나타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생활만족에 있어서는 평균 3.24로 불만보다는 만족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β
.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여가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 등 여가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가관련요인으로는 여가시간 만족도, 여가비용 및 여가비용 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여가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고, 실제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여가비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실제 여가를 위해 비용을 많이 투자할수록 만족도가 높고, 충분하게 여가비용을 소비했다고 생각할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 3-13>

											(%)	( )

여가활동의 목적으로는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3%), 스트레스 해소(21.0%), 즐거움(20.0%), 건강(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인관계, 자기계발, 자기만족, 시간보내기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이 주로 스트레스 해소(22.7%)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20.8%)에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여성들은 즐거움(23.8%),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9%), 건강(19.2%), 스트레스 해소(19.2%) 등 비교적 다양한 목적들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활동의 목적을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베이비 부머가 마음의 안정 및 휴식,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예비노인 세대들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4%), 즐거움(19.7%) 등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두드러졌던 스트레스 해소는 14.0%에 불과하였다. 한편, 노인세대는 건강(32.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 보내기가 20.2%, 즐거움이 18.8%이다.

< 3-14>

81

3

이와 같이 여가활동의 목적은 세대별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일과 관련된 여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이비 부머는 퇴직 전으로 일 중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는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는 즐거움이나 건강을 위한 여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는 경제활동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현실에서 여가를 시간보내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질적 조사에서는 60대 초중반의 연구 참여자들의 여가목적을 4,50대와 은퇴 후

현재의 여가로 구분하여 구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업무의 연장으로서의 여가, 자기개발, 휴식과 충전, 스트레스 해소, 건강추구, 그리고 일에서의 탈피 등 다양한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

> 40~50대면 직장생활 할 때인데... 직장에만 충실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여가생활이) 너무 없는데... 우린 사실은 일 할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요...(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 저는 인제, 일종의... 회사 생활 자체가 쎈 편이니까 거기서 탈피라는 것도 좀 있었고, 고담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나면 그 때 가서 뭘 할 거냐... 참 이게 인생이 무료할 것 같으다 라는 생각을 그 때 저는 미리 좀 했어요(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 내 취미를 갖는 거를 나도 좀 개발을 해보자 그런 생각은 많이 했죠(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 아, 그렇죠. 리프레시가 되는 거니까. ...네. 그... 일을 하면서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돌아다니든지 뭘 책을 보든지...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게 있더라고. 보면. 그리고 일이 쉬면, 뒤에 머릿속에 항상 있잖아요. 어차피 여가라도. 거기서 얻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항상 있으니까 뭔가 다니면서도 그,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 삶의 질에 있어서 뭐... 그... 그 스트레스 해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자기계발도... 그쵸(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 골프를 주로 쳤는데... 거의 100%죠. 토,일요일날. 휴일이니깐. 골프를 쳤는데, 많은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교포도 만나야하고 누구도 만나야되고. 그게 인제 우리 주 업무중 하나에요(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 아, 잠깐... 그걸 하나 갑자기 잊었네. 해외를 나가보니깐 이제 그런 시간은 있어요. 친구보다는 가족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가족이 중요한 걸 알게 되고, 제가 사실 여기 있을 때는 빨리빨리 출세해서

빨리 장관 되는게...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해외에선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아... 가족들의 중요함을 저절로 알게 되요. 가족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그러는게... 그래서 그게 많이 바뀐거 아닌가 싶네요(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은퇴 이후 현재의 여가에 대한 의미와 목적으로 갑작스런 은퇴에 대한 당혹감을 극복하기 위한 몰입대상으로서의 여가, 은퇴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여가, 사별한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여가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의미와 목적이 조사되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퇴직하는 분들이 자기 퇴직 후에 내가 퇴직한다. 하는 생각도 없이 퇴직들을 한 분이 돼서, ...그때는 뭐냐면...음... 예를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을까... 갑자기 나가니깐. 이게 미리 2~3년 앞을 내다보고 무슨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나가니깐 창피하잖아요, 주변에. 수위아저씨 보기도 챙피하고. 그래서 자꾸 산에 가보라 그래서 산에 갔더니 무슨 여자들만 있고. 난 이때 처음 산이라는 델 가봤어. 창피하드라고, 이게 여자들만 있으니깐 못 하겠드라고. 내가 춤 이런걸 싫어하는 이유가 여자들하고 애길 안 해요. 전. 아니오.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누구하고 뭐 하는게 싫고, 대화도 싫고, 그냥 친구도 동창도 하나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강의와 수지침) 집중했어요. 해보자, 뭐든지 어디에 집중을 해보자. 어떻게든 소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주변 사람이 없어도 되니깐(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뭐라고 딱 꼬집지는 못하겠는데요, 쫌 더 유익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저희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사느냐' 이 말을 했을 것 같애, 저한테. 난 왜냐면 그렇게 당구나 치고, 탁구나 치고 매일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사례 D, 63세 여, 교사생활 후 자영업).

여가도 이제 생활이죠, 뭐(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 3-15>

85

3

< 3-16> ,

									(%)

뭐, 시간하고 돈이죠(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고게 여가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되니까. 그거 없이는, 돈 없이는 매치가 안 돼. 그거 아주 중요하더라고.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맨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프라스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으니까. 그 세 가지죠(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 3-17>

								χ^2

< 3-18>

						(%)	( )

현 베이비붐 세대의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기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높을 뿐 성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3-19>

						(%)	( )
(%)							
300							
300~500							
500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83.7%는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 여가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후기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여가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1)

<표 3-20>은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세부 활동별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응답하게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1순위의 응답결과와 1순위에서 5순위의 응답결과를 종합 집계한 전체 비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3-20> (1 5 1)

			1					1	

1순위에서 5순위를 모두 집계한 전체 순위에서 TV시청(16.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낮잠(6.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 여가유형을 살펴보면, TV시청(60.0%)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낮잠(4.6%), 신문/잡지 보기(4.2%), 등산(3.0%), 산책(2.7%), 라디오 청취(2.5%), 독서/만화 보기 및 애완동물 돌보기(2.1%) 등으로 나타났다.

등산과 산책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유형은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이며, 대부분이 주로 혼자서 즐기는 여가활동 유형인 것을 조사되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집계한 전체 빈도와 비율을 보면, 가장 높았던 TV시청과 낮잠을 제외하고, 친구만남/동호회 모임(5.5%),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3.7%),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2.2%) 등 대인관계에 관련된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V시청의 높은 비율은 베이비 부머의 여가 현황을 보여주는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나 실천영역에서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TV시청이 1순위에서는 60%, 전체 순위에서는 1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TV시청 이외의 다양한 여가유형들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3-21> (, ,)

A, B (%)		C, D (%)		E (%)	
		ㄴ			
		ㄴ			

2010년「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크게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등 총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을 위한 설문문항에서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휴식/사회 및 기타활동' 등 세 개의 영역 내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들을 각 각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별 행위를 살펴본 <표 3-21>은 전체 여가활동들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1순위에서 5순위로 선택하도록 한 <표 3-20>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개별영역 내에서의 여가활동들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영역들간의 희망 여가활동들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3-22> (, ,)

(단위: 명, %)

F		G		H	
(%)		(%)		(%)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그리고 사회 및 기타활동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응답하도록 하였지만, <표 3-22>에서는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취미·오락활동 유형에서는 등산(19.4%)와 낚시(11.8%)가 10%를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비록 10%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미용(6.9%)와 쇼핑/외식(5.7%) 등 여성취향적인 여가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 공부, 학원(4.6%) 등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활동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식활동 유형에서는 희망하는 비율이 5%이상인 여가활동이 하나도 없었으며, 특히 현재의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TV시청을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이었으며, 낮잠의 경우에도 4.0%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여가활동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던 '신문/잡지 보기'는 1명만이 응답하여 0.2%의 비율을 보였고, 비교적 높은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던 산책에서도 2.7%의 선호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및 기타활동 유형에서는 사회봉사활동과 친구만남/동호회가 각 각 6.5%의 선호도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종교활동(6.1%)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은 여가활동 중에서 1% 이상의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과 여가유형의 영역별로 5%이상의 비율을 보인 희망여가활동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여가유형(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현재여가활동은 미미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으로 많은 활동이 부각되는 여가유형(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반면에 현재 여가활동으로 많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에서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여가유형(휴식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과 취미·오락활동, 그리고 사회 및 기타활동은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스포츠관람과 구기운동, 헬스 등이 희망여가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가, 댄스스포츠, 밴드민턴/맨손체조 등은 새롭게 희망 여가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 3-23>

	a)	b)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등산과 낚시, 쇼핑/외식, 미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음주, 독서/만화책/인터넷검색 및 채팅은 현재 여가활동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지만, 희망 여가활동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에 어학, 공부, 학원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습활동이 새롭게 희망여가활동으로 부각되었다.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에서는 친구만남/동호회와 종교활동은 현재활동과 희망활동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 여가활동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던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문자 대신에 '**사회봉사활동**'이 희망 여가활동으로 부각되었다.

현재 여가활동에서는 미미하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 많은 여가활동이 나타난 경우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과 관광활동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현재 여가활동을 영화관람만이 유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관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을 스스로 창조하고 즐기기 위한 자기실현적 문화예술여가활동으로 악기연주/노래와 사진촬영이 희망 여가활동으로 제시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활동의 경우, 현재 여가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여행,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풍경방문 등 여행관련 활동과 더불어 온천/해수욕장과 삼림욕 등이 새롭게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베이비 부머에게 여가활용에 가장 불만족한 이유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부담이었는데, 관광활동이야말로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은퇴 이전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기 보다는 은퇴 이후 시간적인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가활동유형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여가유형이 휴식활동이었는데, 희망여가활동으로는 하나의 활동도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비 부머 응답자들은 휴식보다는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여가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지려는 개인의 인식변화와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가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성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4>는 베이비 부머의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들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의 경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과 관광활동 영역에서의 현재 여가활동에 비해 희망여가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여가활동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남녀 모두 현재 여가활동보다는 희망 여가활동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휴식활동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현재 여가활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희망 여가활동으로는 남성은 낮잠, 여성은 목욕/사우나/찜질방으로 하나의 여가활동만이 제시되었다. 사회 및 기타활동 영역에서도 남녀 모두 현재에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는 사회봉사활동과 친구만남/동호회(남성), 종교활동(여성) 등 두 개의 여가활동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녀별로 현재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의 비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모두 8개의 활동이 현재여가활동으로 제시되었지만, 희망여가활동에서는 낚시와 등산 등 두 개 활동만이 제시된 반면에, 여성은 7개의 현재여가활동에 대해 희망여가활동으로 5개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여가활동 유형별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특정 여가활동이 있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전통예술관람 등 관람에 관심이 높으며, 사진촬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음악연주회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남자는 사이클링/산악자전거를 하고 싶어하지만, 여성들은 요가/필라테스/태보, 댄스스포츠를 하고 싶어했다.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성은 낚시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은 미용, 어학/기술 자격증 등 학습활동, 그리고 요리하기/다도 등 다양한 영역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는 남성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종교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 3-24>

				24(9.2) 22(8.5)	15(5.8)
		49(3.8)			/ 15(5.8)
					17(6.5)
			19(1.5) / / 16(1.2)	58(22.3)	
				/ 23(8.8)	
					21(7.9)
				/ / 59(22.3) 28(10.6)	
		33(2.5)	14(1.1)	35(13.2) / 21(7.9)	, , 19(7.2) , / 16(6.0)
				/ / 14(5.3)	
				24(9.1)	

이와 같이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의 비교에서 성별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베이비 부머의 여가참여 욕구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대별로 현재 여가활동을 비교해 볼 때, 베이비 부머의 현재 여가활동은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3-25 참고). 이는 희망 여가활동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26 참고). 이는 희망 여가활동이 실제 여가활동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베이비 부머의 희망 여가활동이 은퇴 이후 이들이 예비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 실제 여가 활동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대별 여가활동 비교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다만, 여가활동과 관련된 베이비 부머의 특성들(예,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등)이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희망 여가활동이 실제 여가활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에게만 맡겨 놓기 보다는 일 중심의 문화적 성향이 높은 이들에게 여가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며,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25>

		(56 ~64)	(65)
			/
	/		(: ᄂ)

< 3-26>

			(56 ~64)		(65)	
			-		/ /	

은퇴 이후 여가활동에 대한 질적 조사 연구를 보면, 젊은 시절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도전으로 기타나 그림 등 여가활동을 시작한 경우와 은퇴 이전의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직장생활의 경력을 여가로 이어지게 하거나, 직장생활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은퇴 이후 이전 직장생활패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가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지한 것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생활을 우선하는 경우이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은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가생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은퇴 이후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없이 은퇴를 맞이한 경우도 있었다.

> 기타는 제가 그 전에 손도 안 대봤는데, 참 그거... 내가 안 배운 게 후회가 됐거든요. 아니, 젊은 시절에... 그거 보면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한... 기타는 이걸 내가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를 배웠으며는 진짜 지금 여기서 글로벌로 리사이틀 활동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까지 해보는데... 기회를 저기 못 한 거거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침

여기서 기타반이 생겼어요. 이거 뭐 앞으로 한... 20~30년 살다 보면 지금 뭐, 1-2년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니다... 도전해보자. 그래갖고 시작된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은 참 잘 그렸는데, 왜 옛날엔 미대를 못 갔잖아요. 미대 가면 굶으니깐. 처음엔 문화센터 였던가? 그게? 아니, 저기 동사무손가... 그런데 정물화 놓고 하는 거 보니깐 선생이 아, 어디서 많이 했냐고. 아 나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다. 그랬더니... 하여튼 금방막 늘드라고요.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내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안 나가는데. 예, 집에도 캔버스 다 있어요... 딸도 하나씩 주고, 이게 좋드라고요. (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저희도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사실 따지면 우리가 중동 나가서 열사의 땅이라고 돈 벌어 오고 그런 것도 보며는, 사실 그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 생각에도 아, 우리가 중동 나가서 이렇게 큰 돈들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경제 발전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수혜를 입었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 정도는 베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했었죠~(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저는 또 여가라는 게 인제, 사실... 일할 때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요. 그전에는 막, 처음에 학교에 취임할 때는 애들 막 시험도 보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들 공부를 잘 하게 해야지' 이런 것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한 50대 이후에는 '아, 아니다... 인성교육, 전인교육' 그런 걸 제가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데 아이들, 아이들 공부보다도 어려운 아이들... 방과 후에 상담을... 예. 그래서 상담을 제가 인제 관심을,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제가 상담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게 여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사례 H, 62세 여, 교사)

난 진지한 건 하기가 싫어~ 지금도 영어나 뭐, 이런 거 배우는 건 싫어요. 그렇게 싫어요, 요즘에는. 싫고. 그냥 노래 불러~ 그냥. 노래 못하지만. 제 쪼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제 갈 데가 없다,

불러주는 데도 적다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복지관 같은 데 노래교실, 댄스스포츠도 하고 싶거든요? 그냥... 노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사례 G, 63세 여, 교장).

남자들은 은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엄마들은 계속 이어 오는 거죠(사례 B, 63세 여, 전업주부)

예. 은퇴 후 여가라는 게 좀 쉬면서, 그동안 막 활동하던 거를 쉬면서, 식히면서도 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아니고, 예. 음...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가에 대해서 저는 뭐, 신중히 생각해 보지를 않았었어요(사례 H, 62세 여, 교사)

< 3-27>

									X^2
		299	**(57.0)**	**179**	**(51.1)**	**343**	**(54.1)**	**821**	**(54.4)**	
				148	**(42.3)**					

베이비 부머세대는 특히 빈둥지 시기가 19.4년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노후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한경혜, 2011). 또한, 부부간의 연령차이와 학력차이가 감소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베이비 부머의 여가 동반자 현황을 보면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57.0%를 나타내고 있다. 배우자가 포함된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비율에서도 3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비록 예비노인세대는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세대에서 다시

34.7%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남성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에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부부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전 시기부터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와의 여가에 대한 질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여가생활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자신의 여가를 방해받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느라 여가생활을 방해받는 것 때문에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가족여행이나 자녀와 독립해서 배우자와 단 둘이 사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이른바 '따로 또 같이' 여가패턴을 보인다.

> 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기가 좋은 것에 대해선 타치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은 두드래기 나니까는, 나 좋아하는 거 따라하자 소린 안 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난 따라 가줘요, 그냥(사례 B, 63세 여, 전업주부/외무부대사 부인)

> 내 이유는 그거죠. 남자는 하루 죙일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잠만 자는 하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들어 남자 분들이 식사도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집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깐 내가 어디 나갈라면, 주로 점심 약속이 12시 1시 잖아요.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근데 안 나가시고 집에 있으면... 그 스트레스...이 집은 다~ 차려놓고. 그러니깐 내가 미리 차려놓을 수는 없으니깐. 시간 딱 12시 되면 다다닥 챙겨 놓고. 밖으로 나 나간다고. 그런데 그게 한 두 번 되는데 자꾸 하니깐 본인 생각은 내가 집에서 노니깐 쟤가 나가질 못하나. 그러니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생기고(사례 B, 63세 여, 전업주부/외무부대사 부인)

> 어... 그, 요즘에 보면, 저희 동네도 보며는 댄스 그걸 많이 해요. 어, 그거 아주 괜찮아 보인다 그랬더니, 아이 그건 싫다 이거야. 그런 몸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 아뇨, 뭐 섭섭할 것도 없고, 사실 뭐 크게 기대도 안 하고 물어봤었으니까. 물론 있죠.

그런 거(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 보면 부럽긴 하죠. 취미 정서가 틀리니까. 우리 집사람, 또 음악 이런 건 정말 싫어해요. 저는 음악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카리나, 합창, 기타. 그런데 막 싫어하니까 혼자만 하는 거지(사례 C, 63세 남, 건설업 관리직)

같이 안 다니지. 나는 여기 다니면, 당신은 여기가. 솔직한 얘기루요. 조금 같이 다니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야, 우리 부부끼리 어디' 그러면 미쳤니? 이러지 덜. 여자친구들끼리 다니는데 남자들은 자꾸만 집으로 이렇게 친구가 떨어지더라구요(사례 F, 60세 여, 교사)

네... 운동을, 우리 집사람은 싫어해. 안 해.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드라구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대로 다 하고, 여가 보내고.... 주로 친척집에 많이 가요. 언니네, 그런 데를 많이 가더라고(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나들이. 어디 가는 건 무박. 2박 3일, 1박 2일 이런 거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데리고. 그들이'휴가, 엄마, 언제쯤 갑시다'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꼭 지금은 그렇게 다녀요. 손잡고. 손자, 손녀 데리고...남편한테 같이가 하면, 남편은'어우,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면 나 혼자 가...(사례 G, 63세 여, 교장)

저희 아이들은 다 외국에 지금 가 있어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있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이 될 때요, 남편하고 같이 뭐... 많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죠 뭐. 등산도 가끔 가죠...(사례 H, 62세 여, 교사)

2)

여가활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여가활동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얼마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본인의 여가활동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여가활동들을 토대로 개인의 여가활동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 여가활동들을 활용하였으며, 세부 여가활동들을 A에서 H까지 총 8개 여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3-28>

1~3					2~4				
			66	**12.6**				**26**	**5.0**
			257	**49.0**				**257**	**49.0**
			202	**38.5**				**242**	**46.1**
			525	**100.0**				**525**	**100.0**

<표 3-28>은 여가활동 우선순위 중에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한 여가활동들을 조사하여, 여가활동의 유사성(여가활동 유형 범주)에 따라 여가패턴을 구분한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세 가지 활동 모두가 동일한 여가유형 범주에 속할 경우 '동일형', 두 개만이 동일한 여가유형 범주에 속하면 '중복형', 그리고 세 가지 여가활동이 모두 다른 유형범주에 속할 경우 '혼합형'이라고 칭하였다.

동일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2.6%, 중복형은 49.0%, 혼합형은 38.5%로 중복형의 여가패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여가패턴에서 휴식활동(G유형)이 가장 많아서 동일형의 경우 세 가지 여가활동이 모두 휴식활동인 경우(G동일형)가 97%인 64명이었고, 휴식활동이 두 개로 중복된 경우가 72%인 185명(G중복형), 그리고 혼합형 중에서도 1순위가 휴식활동(G주도 혼합형)이 65.8%인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범주에 TV시청과 낮잠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응답자들이 1순위로 TV시청과 낮잠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1순위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TV시청 또는 낮잠 응답성향을 감안하여 2순위부터 4순위까지 세 가지 여가활동 유형으로 다시 여가패턴을 재구성해 보아도, 휴식활동 중심으로 여가패턴 특성은 유지되고 있었다.

< 3-29>

	257	**(49.0)**	**194**	**(55.4)**	**370**	**(58.4)**

<표 3-29>는 여가활동 패턴 비율을 세대별로 제시하고 있다. 중복형의 여가패턴은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형 여가패턴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베이비붐 세대

에서 노인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일형 중에서도 휴식활동 중심의 여가활동(GGG패턴)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세대의 30% 정도는 휴식활동과 관련된 여가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혼합형 여가패턴은 베이비붐 세대에서 노인세대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노인세대 내에서도 혼합형 여가패턴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노인세대들의 여가 다양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여가패턴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기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중복형 패턴(47.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혼합형(40.2%), 동일형(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베이비 부머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복형과 혼합형의 비율차이가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중복형, 혼합형, 동일형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동일형 패턴이 더 많고, 혼합형 패턴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이 동일형 패턴이 가장 적은 7.4%인 반면에 혼합형 패턴은 47.6%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형 여가패턴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혼합형 여가패턴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30>

										X^2
						109	**(40.2)**			
						107	**(41.2)**			
		38	**(14.3)**							
		11	**(7.4)**			**71**	**(47.6)**			
		5	**(4.6)**			**52**	**(47.7)**			

< 3-31> ,

			(N=66)	(N=257)	(N=202)	F
			3.82			
			6.94			
			5.08			
					8.44	
					135.74	
					199.65	
					296.58	
					4.77	

혼합형이 동일형보다 실제로 소비한 여가시간은 평일이나 휴일 모두 적게 나타나지만, 희망여가시간은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형 여가패턴의 대부분이 휴식활동이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여가비용을 보면 혼합형이 동일형이나 중복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32> , , ,

									χ^2
	14	**(21.2)**	**42**	**(16.3)**	**38**	**(18.8)**			
	20	**(30.3)**	**54**	**(21.0)**	**31**	**(15.3)**	**105**	**(20.0)**	
			57	**(22.2)**	**47**	**(23.3)**	**112**	**(21.3)**	
	15	**(22.7)**	**58**	**(22.6)**	**37**	**(18.3)**	**110**	**(21.0)**	
			12	**(4.7)**	**16**	**(7.9)**			

여가패턴별로 여가목적을 살펴보면, 동일형에서는 즐거움(30.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22.7%)와 건강(21.2%) 순으로 나타났고, 중복형에서는 스트레스 해소(22.6%), 마음의 안정 및 휴식(22.2%), 그리고 즐거움(21.0%)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건강추구는 동일형에 비해 다소 떨어진 16.3%로 나타났다. 한편, 혼합형에서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2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18.8%), 스트레스 해소(18.3%), 즐거움(15.3%), 대인관계(12.9%) 등 다양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대인관계는 동일형(4.5%), 중복형(8.2%)에 비해 12.9%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혼합형 여가패턴의 또 다른 특징으로 사료된다.

< 3-33> ,

	(N=66)	(N=257)	(N=202)	F

여가의 다양성이 개인의 여가만족도,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여가활동이라도 몰입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낮은 몰입도로 여러 개의 여가활동을 수행할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패턴에 따라서 여가시간과 비용에 대한 인식과 여가생활 만족도, 그리고 행복수준을 살펴보았다(표 3-33 참고).

여가시간과 비용에 대한 인식은 모든 유형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보임으로써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동일형이 상대적으로 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혼합형(평균 3.33)이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여가패턴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혼합형의 여가패턴을 가진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수준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 3-34>

									X^2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에 대해 여가패턴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일형(61.1%)과 혼합형(65.8%)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중복형(51.4%)은 시간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형의 여가패턴이 주로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표 3-30 참고),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여

가활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혼합형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과 상대적으로 휴식활동 이외의 여가활동들을 즐기기 위한 실질적인 여가비용 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 3-35>

										X^2

동호회에 참여하는 응답자 중에서 혼합형 여가패턴(54.1%)이 가장 많은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는 중복형 여가패턴(52.8%)이 가장 많은 것을 조사되었다.

3)

전체 525명의 베이비 부머 응답자 중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218명으로 41.5%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47.3%)가 여자(35.8%)보다 동호회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베이비 부머(39.4%) 보다는 후기 베이비 부머(43.5%)의 동호회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동호회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3-36>

< 3-37>

동호회의 주요 활동은 곧 동호회의 성격을 말해준다. <표 3-37>에 따르면, 계모임이나 동창회(22.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만남이나 취미생활 동호회(19.7%), 구기운동(12.4%), 등산(9.2%)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7.8%)와 종교활동(6.0%)을 통한 동호회 활동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기운동(12.4%)을 포함하여 기타 동호회로 분류되었던 배드민턴/맨손체조(1.7%), 수상운동(1.1%), 사이클링/산악자전거(1.0%), 헬스(0.4%), 육상/조깅/속보(0.4%), 댄스스포츠(0.2%) 등 운동 및 스포츠 활동 동호회는 전체적으로 17.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3-38>

		1		2		3		4		5		6	

< 3-39>

	(%)	(%)	2~3 (%)	1 (%)	1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는 1개인 응답자가 89명(1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개(59명, 11.2%), 3개에 동시에 동호회 가입을 한 응답자는 28명(5.3%)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가입 동호회 수는 2.43개로 나타났다.

동호회 참여빈도는 한 달에 1번이 가장 많은 89명(17.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 달에 2~3번이 67명(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 3-40>

			.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소속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14.2%), 학교(10.6%), 종교단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는 여성 베이비 부머가 66.3%로 남성 베이비 부머(46.3%)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교단체 동호회에서도 여성(14.7%)이 남성(5.7%)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직장 소속의 동호회는 남성(22.8%)이 여성(3.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학교 소속 동호회에서도 남성(14.6%)이 여성(5.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호회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이나 학교중심의 동호회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직장소속의 동호회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14.2%)로 가장 높았고, 은퇴 이후의 세대인 예비노인과 노인세대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 중심의 동호회(예, 동창회)는 베이비붐 세대(10.6%)보다 예비노인 세대(18.4%)가 더 높지만 노인세대에서는 7.2%에 불과하였다. 은퇴 이후 시기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동문회 등 학교소속의 동호회 활동이 증가하지만, 노인세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소속 동호회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활동인 동호회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비노인세대(54.5%)는 베이비붐 세대(5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인세대(66.0%)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반 동호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비율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종교활동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9.6%인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는 18.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장 중심의 동호회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고, 학교는 은퇴 직후인 예비노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은 노인세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종교활동은 예비노인세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동호회 활동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은퇴 직후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 보다는 학교 중심의 동창회/동문회와 종교활동의 동호회 활동이 다소 강세를 보이다가 노인세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3-41>

		(%)	(%)	, (%)	, (%)	(%)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더 많은 자유시간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호회 참여와 확대를 위한 정보 필요가 21.9%,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필요가 13.7%, 설비 및 장비 필요가 8.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호회 활동을 하는 베이비 부머(18.3%)는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베이비 부머(10.4%)에 비해 동호회 활동 공간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동호회 참여 및 확대를 위한 정보에서는 동호회 참여 응답자가 19.7%, 동호회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23.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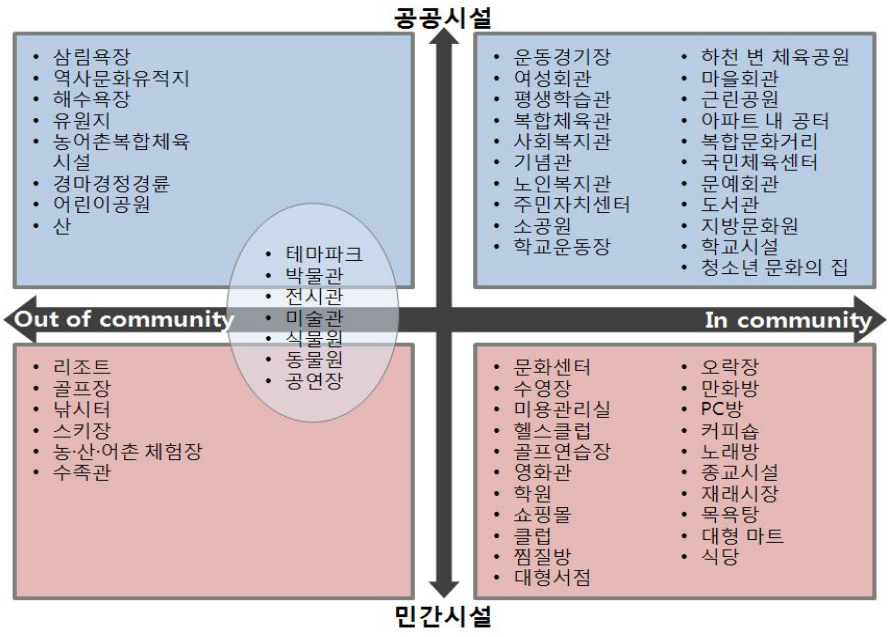
.

1) (vs. / vs.)

여가기관 및 시설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현황 및 실태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기관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여가시설과 민간영역의 여가시설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여가시설/기관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지, 지역사회 밖에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3-2] (vs. & vs.)



[그림 3-2]는 2010년「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제시한 여가시설들을 바탕으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인지에 따라 한 축을 구축하였고, 시설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밖에 있는지에 따라 나머지 한 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면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들은 운동경기장,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 여가시설이 있으며, 민간시설이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가시설로는 문화센터, 수영장, 미용관리실,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영화관 등 많은 시설들이 있다. 한편, 공공시설이면서 지역사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로는 삼림욕장, 역사문화유적지, 해수욕장, 유원지 외 다수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면서 지역사회와 떨어진 곳에 있는 여가시설로는 리조트, 골프장, 낚시터, 스키장, 농어촌 체험관, 수족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매우 임의적인 작업으로 특정 여가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로 운영되기도 하며, 혹은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테마파크,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식물원, 공연장 등은 민·관시설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3-4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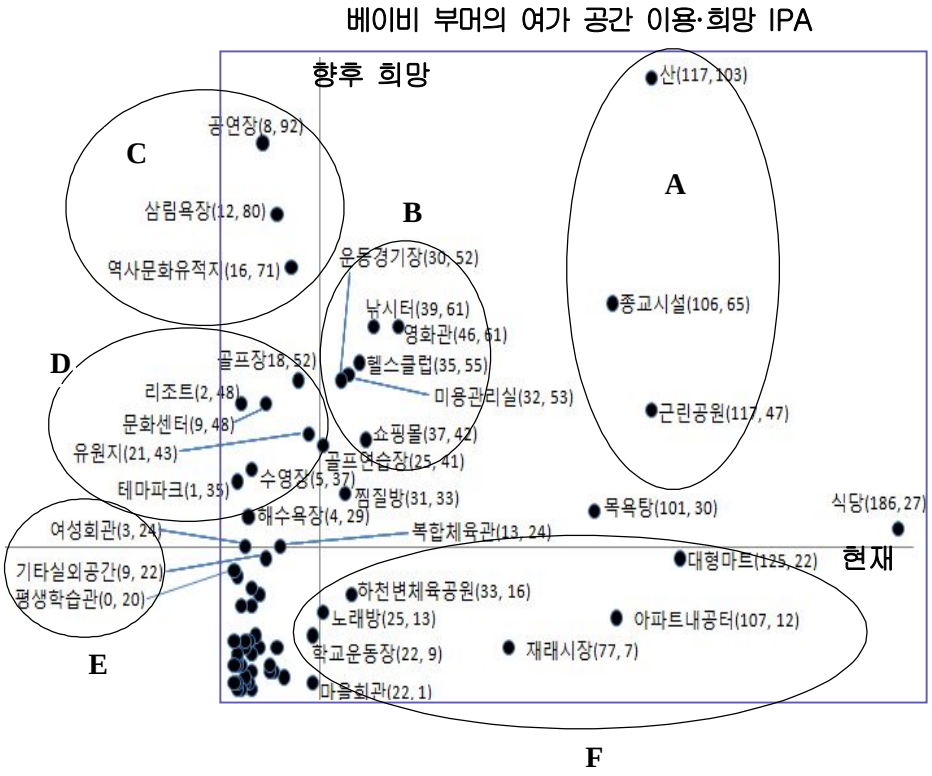
베이비 부머는 여가시설로 공공시설(38.8%)보다는 민간시설(48.4%)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용하는 여가시설은 물론 향후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여가시설에서도 민간시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는 현재 이용여가시설은 민간시설이 조금 더 많지만, 향후에는 민간시설(41.3%)보다 공공시설(46.7%)

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경우는 현재에도 공공여가시설(58.7%)을 더 많이 이용하지만, 향후에도 공공여가시설(52.3%)을 민간여가시설보다 더 많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민관시설에 대한 이용도와 향후 희망정도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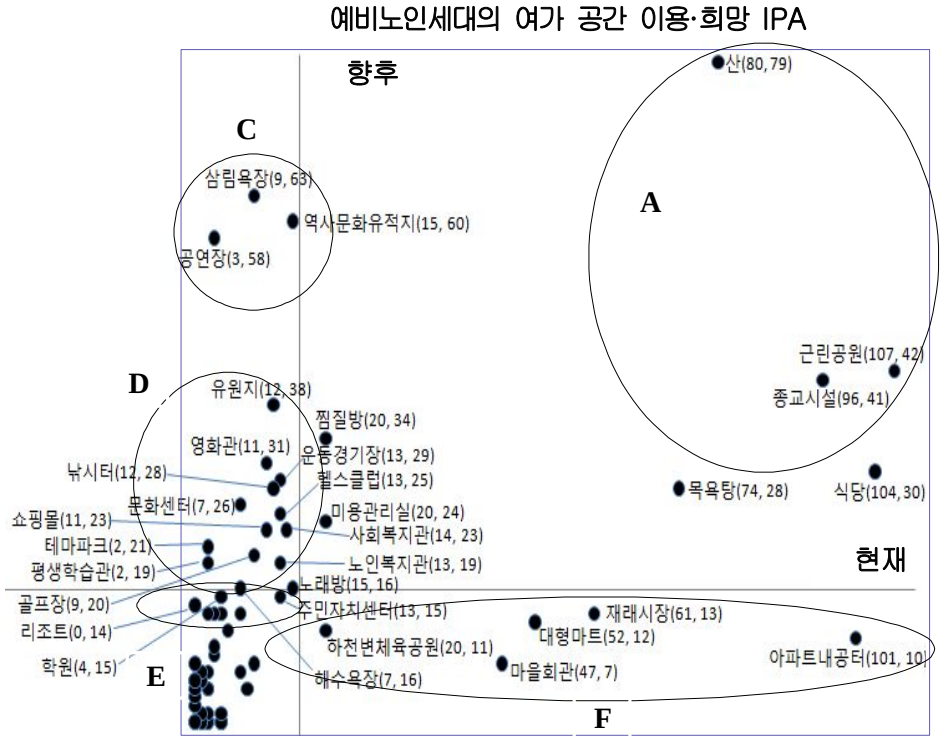
2)

현재 이용하는 여가시설과 향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가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를 토대로 하여 각 각의 평균 빈도를 X축과 Y축의 교차점으로 하여 두 축을 교차시키고, 여가시설들을 해당 빈도 점수에 맞게 위치 설정을 하였다. 현재 이용 여가시설과 희망 여가시설 모두 평균 23.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기법은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으로 X축과 Y축을 교차시켜 나타나는 4사분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그림 3-3]의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분면(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들은 현재 이용하는 것도 평균 이상이며, 향후 희망하는 여가시설로도 평균 이상인 시설이다. 왼쪽 상단 분면(2사분면)은 현재에는 평균 이하의 이용실적을 보이지만, 향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평균 이상의 빈도를 보인 시설이 된다. 왼쪽 하단 분면(3사분면)은 현재에도 이용 빈도가 평균이하이며,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도 평균 이하인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 분면(4사분면)은 현재 이용은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은 평균 이하인 시설이 된다.

[3-3] IPA


베이비 부머의 여가 공간 이용·희망 IPA
향후 희망
현재
A
B
C
D
E
F
산(117, 103)
공연장(8, 92)
삼림욕장(12, 80)
역사문화유적지(16, 71)
운동경기장(30, 52)
낚시터(39, 61)
영화관(46, 61)
헬스클럽(35, 55)
미용관리실(32, 53)
종교시설(106, 65)
근린공원(117, 47)
골프장18, 52)
리조트(2, 48)
문화센터(9, 48)
유원지(21, 43)
쇼핑몰(37, 42)
골프연습장(25, 41)
수영장(5, 37)
테마파크(1, 35)
찜질방(31, 33)
해수욕장(4, 29)
여성회관(3, 24)
복합체육관(13, 24)
목욕탕(101, 30)
식당(186, 27)
대형마트(125, 22)
기타실외공간(9, 22)
평생학습관(0, 20)
하천변체육공원(33, 16)
노래방(25, 13)
아파트내공터(107, 12)
학교운동장(22, 9)
재래시장(77, 7)
마을회관(22, 1)

[3-4] IPA



[그림3-3] 을 보면, 그래프 상에서 원형으로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각 A부터 F까지 영역 표시가 되어 있다. **A영역**의 여가시설은 현재 이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동시에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도 매우 높은 여가시설이다. **A영역**에는 산, 종교시설, 근린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B영역**은 현재 이용 빈도가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매우 높지는 않지만 희망 이용 빈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여가시설들이다. 낚시터, 영화관, 헬스클럽, 미용관리실, 운동경기장, 쇼핑몰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 **C영역**은 현재 이용 빈도는 평균에서 약간 밑도는 수준이지만, 희망 이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공연장, 삼림욕장, 역사문화유적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D영역**은 평균 이하의 현재 이용 빈도를 보이지만, 희망 이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시설로서 골프장, 리조트, 문화센터, 유원지, 테마파크, 수영장 해수욕장 등 주로 민간여가시설들이 있다. **E영역**은 평균 이하의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를 보이지만, 희망 이용빈도가 평균빈도에 가까운 시설로서 향후 '잠재적 여가시설'로서 주목할 만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복합체육관 등 공공여가시설이 있다. **F영역**은 현재 이용빈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희망 이용 빈도가 평균 이하로 나타난 여가시설로서 점차 베이비 부머의 관심을 잃어가는 여가시설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 아파트 내 공터, 재래시장 등은 현재의 높은 이용빈도에 비해 희망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가시설이다.

전반적으로 A, B, C, D영역에 위치한 여가시설들은 희망 이용빈도가 평균 이상인 여가시설로서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가시설들이며, 이들을 보다 세분화 해 보면,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가 모두 높은 A 및 B 영역은 여가활동의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전략이 없어도 높은 이용빈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환경을 통해서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C와 D영역은 높은 관심에 비해 현재 이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연장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지역사회 내의 공연시설을 구축하고, 여가활동의 주요 불만족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E영역은 통계적 수치로는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가능성을 보이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은 평생학습과 취미·오락활동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표적화(targeting)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F영역에서 아파트내 공터나 재래시장, 하천변 체육공원등은 현재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향후 희망 이용빈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여가시설들에 대한 대응전략은 또 하나의 방대한 연구영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편, 예비노인 세대의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에 따른 IPA가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B영역의 시설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치상으로 비슷한 영역에 있지만, 해당되는 여가시설들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A와 C영역의 여가시설은 두 집단이 일치하고 있지만, D영역에서는 평생학습관이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공공여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E영역에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D영역에 속해 있었던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베이비 부머에게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예비노인세대들에게는 민간여가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내 공공여가시설(복지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잠재적인 여가시설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베이비 부머가 은퇴 이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지역사회 공공여가시설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적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이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가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4.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여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가관련 특성, 여가활동의 실태분석, 그리고 여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

베이비 부머의 세부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TV시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그리고 낮잠, 등산,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쇼핑 및 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을 여가활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문화 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침 참여활동, 관광활동 등은 현재 여가활동은 매

우 미미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유형에서는 현재에는 단순히 영화관람에서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관람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여가활동에 비해 희망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은 관광활동이다.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관광활동으로 해외여행, 삼림욕장, 온천/해수욕장,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 및 풍경 방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참여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욕구수준이 높은 여가활동 영역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 이외에도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및 휴일)과 여가비용에서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적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 여가시간은 많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비용에서도 남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여가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의 목적에 있어서는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여가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 여가의 주요목적인 반면에 스트레스 해소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

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전통예술관람 등 관람에 관심이 높으며, 사진촬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음악연주회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남자는 사이클링/산악자전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여성들은 요가/필라테스/태보, 댄스스포츠를 하고 싶어 했다.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성은 낚시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은 미용, 어학/기술 자격증 등 학습활동, 그리고 요리하기/다도 등 다양한 영역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는 남성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종교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혼합형 여가패턴 비율이 높았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혼합형 여가패턴의 비율이 높아 보다 다양한 유형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대상별로 여가시간활용, 여가비용, 여가목적, 여가활동 유형, 여가패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전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게 될 경우, 직장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생활기반을 전화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응여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소속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는 지역사회, 학교(동문, 동창), 직장, 종교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예비노인 세대와 노인세대를 비교해 볼 때, 직장소속의 동호회와 학교 소속 동호회는 감소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와 종교단체의 동호회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지역사회 소속의 동호회 비율은 세대와는 무관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이후 지역사회 적응은 노년기 여가활동은 물론 삶의 질에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빈도를 활용한 IPA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 내 여가시설로 종교시설과 근린공원이 가장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 희망 이용빈도에서 주목할 만한 시설로는 여성회관과 평생학습관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노인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 이외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 부머가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SOC Model에 의하며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주로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선택(selection)과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완/보상(compens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중장년기 때의 상태로 복원(resilience)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성공적 노화'라고 말한다. 이때 선택에는 선별적 선택(elective selection)과 상실에 의한 선택(loss-based selection)이 있는데, 은퇴(직업의 상실)나 건강악화(건강의 상실) 등 상실에 의한 선택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선별적 선택은 상대적으로 인식의 정도 약하다. 즉, 노후설계에서도 재무관리나 건강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이후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일 중심의 생활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 부머에게는 일을 위한 휴식이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이른바 '여가투성이'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곧 여가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 세대, 그리고 노인세대의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여가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꿈꾸고 있는 희망 여가생활을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꿈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에게 은퇴 이후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실천의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가생활을 홍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가시간 자체보다는 여가시간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었던 반면에, 여가비용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여가비용과 더불어 사용한 여가비용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여가비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가 불만족 이유에서도 베이비 부머는 시간 부족(41.6%)보다도 경제적 부담(53.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의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이 약 27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11만2천원보다 약 15만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소비하고 있었다. 희망여가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비용보다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버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가의 비용측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소득불평등 장기 전망

1.

超

.

.

2.

가. 연구내용

나. 분석자료

「 」

다. 연구내용별 분석방법

①

② ③

—

$$GINI = \frac{1}{\mu n^2} \sum_i \sum_j |y_i - y_j|$$

$$Gini = \frac{Cov\ y\ F\ y}{\mu_y}$$

$$y = \sum_{K=}^{K} Cov\ y_k\ F$$

$$Gini = \frac{\sum_{K=}^{K} Cov\ y_K\ F\ y}{\mu_y} \qquad Cov\ y_K\ F\ y$$

$$\mu_y$$

$$Cov\ y_K\ F\ y_K \qquad \mu_K$$

$$Gini = \sum_{K=}^{K} \frac{Cov\ y_K\ F\ y}{Cov\ y_K\ F\ y_K} \bullet \frac{Cov\ y_K\ F\ y_K}{\mu_K} \bullet \frac{\mu_K}{\mu_y}$$

$$Gini = \sum_{K=}^{K} R_K G_K S_K$$

R_K

G_K

S_K

3.

.

. . .

.

. . .

. 2)

① ② ③

.

~

~

. ~

143

3

~ ~ ~

	.			
	.			
	.			
	.			
(, ,)				
	.			
	.			
	.			
				『 』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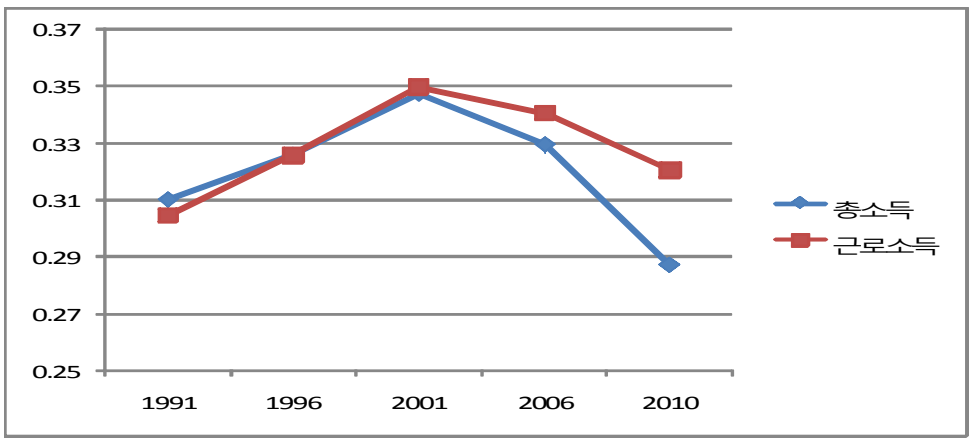
.

< 3-44>

	1991 (n=2,951)		1996 (n=3,260)		2001 (n=3,295)		2006 (n=4,753)		2010 (n=4,416)	
30										
40										
50										
60										
1										
2										
3										
4										
5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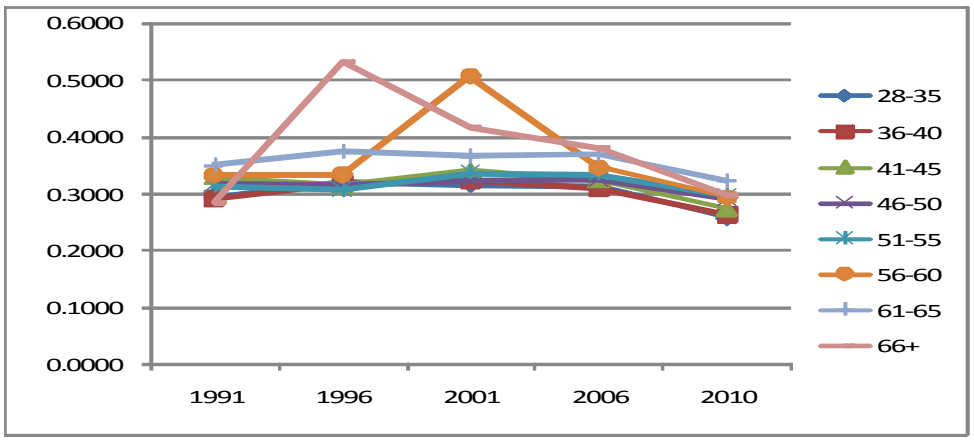
< 3-4> , 1991~2010

	1991	1996	2001	2006	2010

~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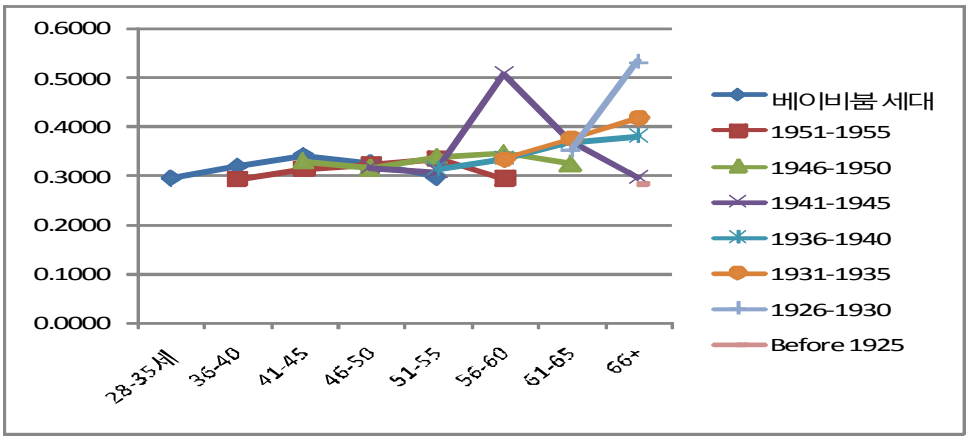
< 3-46> ,

	1991	1996	2001	2006	201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5+					

~

~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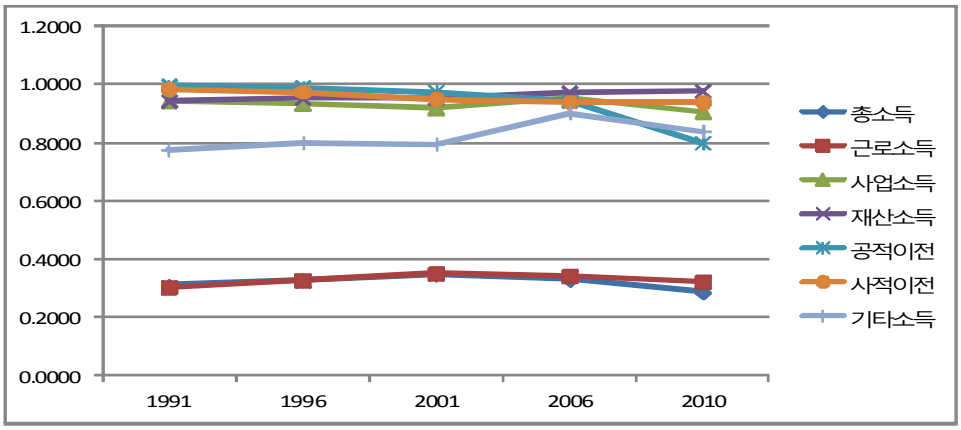


<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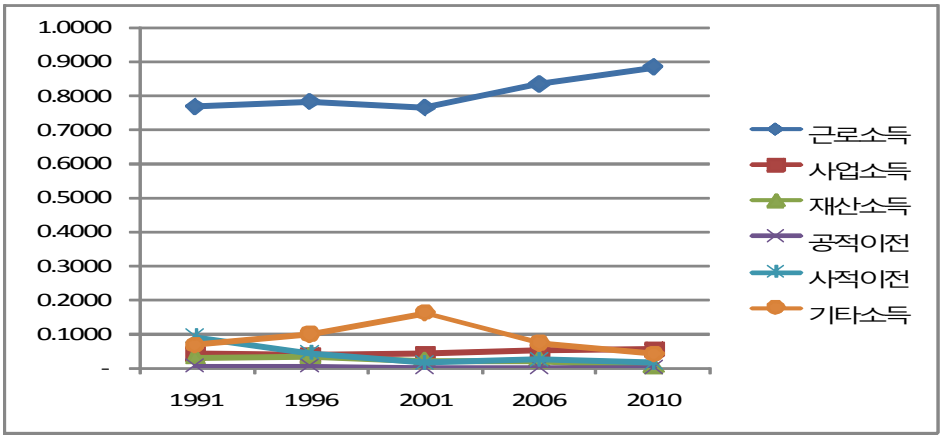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1925

.

[3-8]


1.2000
1.0000
0.8000
0.6000
0.4000
0.2000
0.0000
1991
1996
2001
2006
2010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3-9]


1.0000
0.9000
0.8000
0.7000
0.6000
0.5000
0.4000
0.3000
0.2000
0.1000
-
1991
1996
2001
2006
2010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 3-48>

		( )	Rk	Gk	Sk	I/

2)

157

3

<   3-49>

		1991	1996	2001	2006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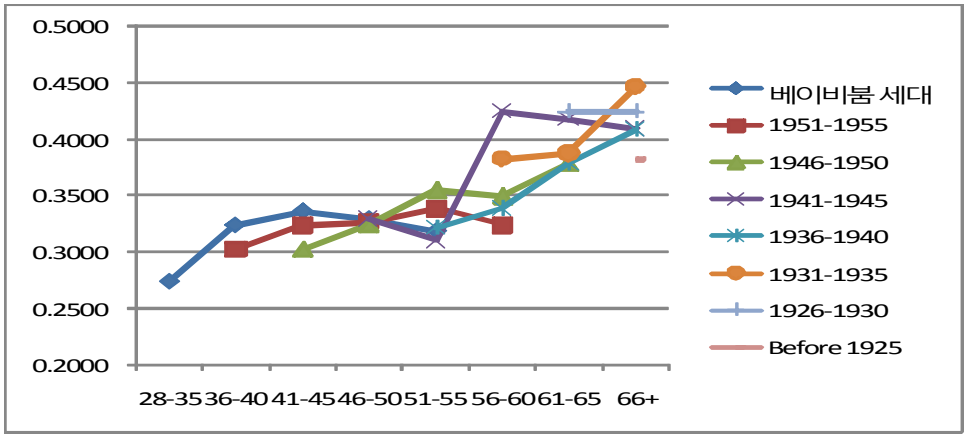
< 3-50>

		1991	1996	2001	2006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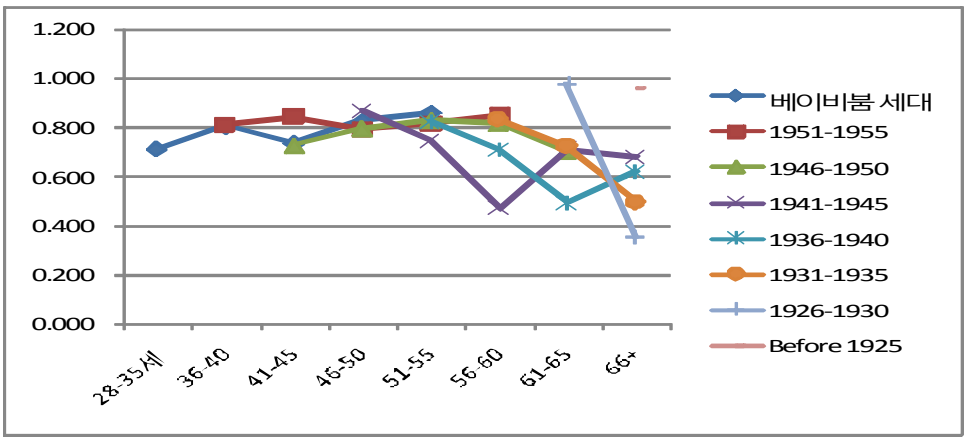
3)

①

[3-10]


0.5000
0.4500
0.4000
0.3500
0.3000
0.2500
0.200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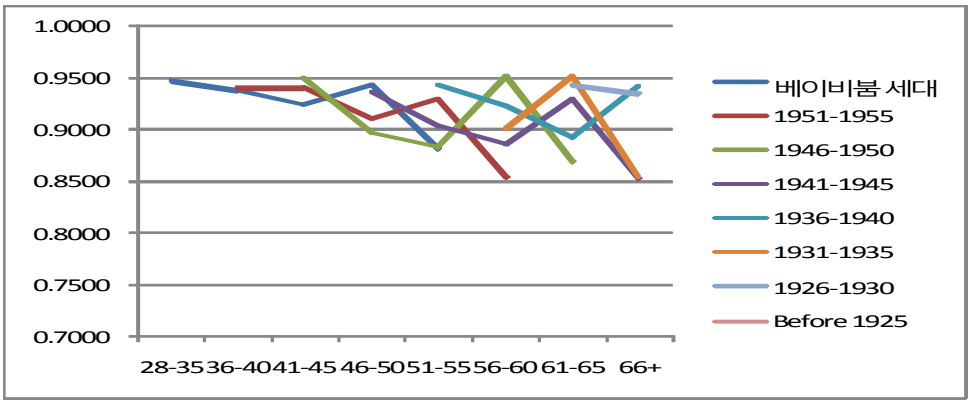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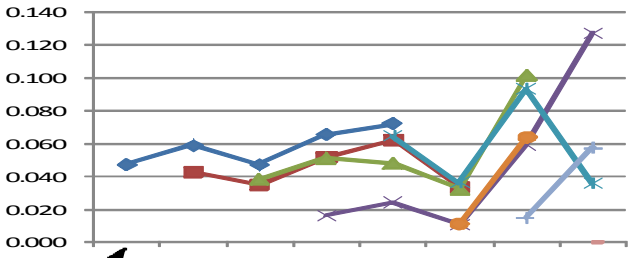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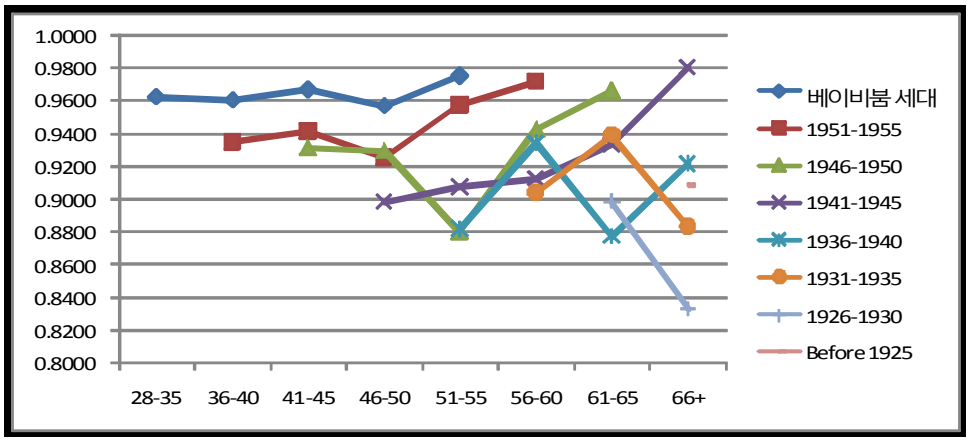
[3-12]


1.0000
0.9500
0.9000
0.8500
0.8000
0.7500
0.700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3-13]



[3-14]


1.0000
0.9800
0.9600
0.9400
0.9200
0.9000
0.8800
0.8600
0.8400
0.8200
0.800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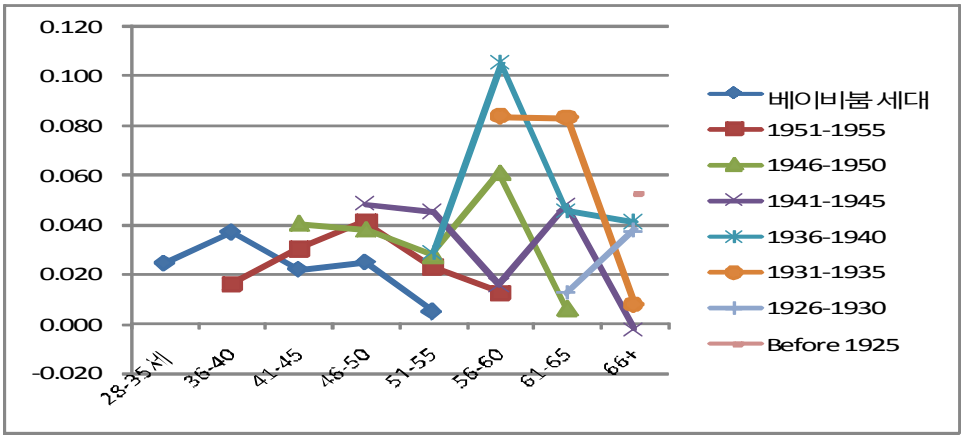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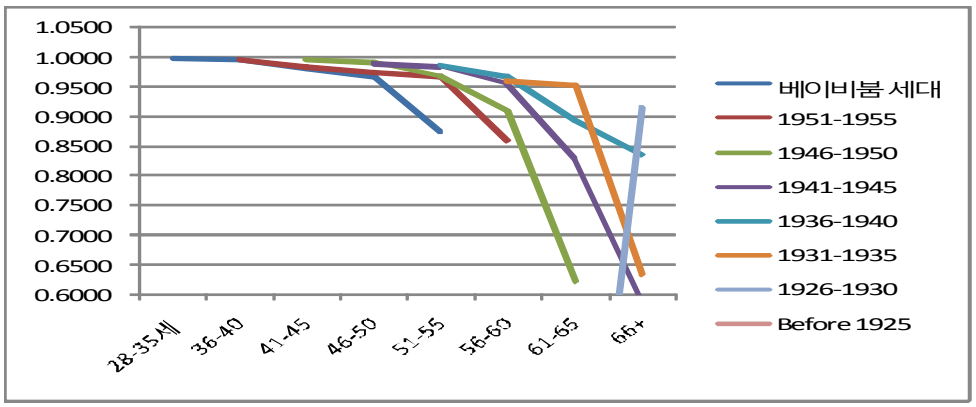
~

[3-15]


0.120
0.100
0.080
0.060
0.040
0.020
0.000
-0.02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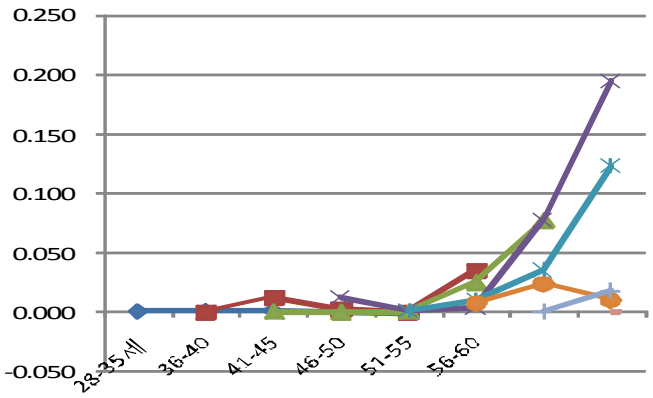
④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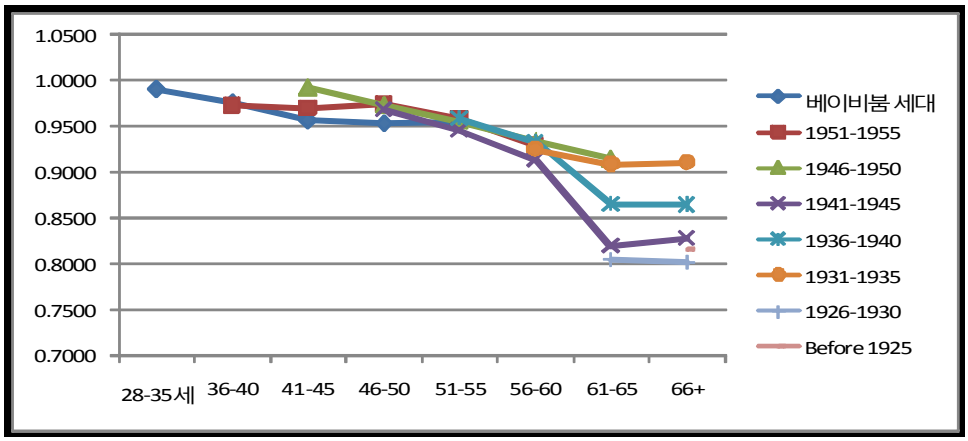

1.0500
1.0000
0.9500
0.9000
0.8500
0.8000
0.7500
0.7000
0.6500
0.600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 ~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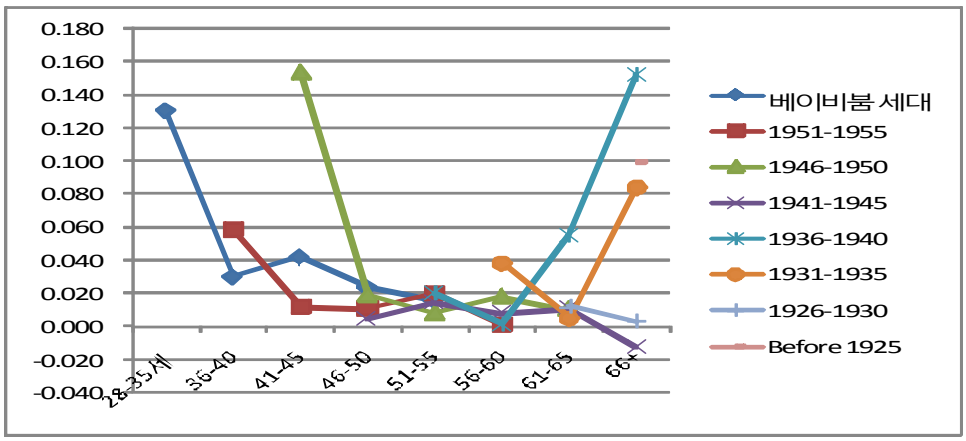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0.05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3-18]


1.0500
1.0000
0.9500
0.9000
0.8500
0.8000
0.7500
0.700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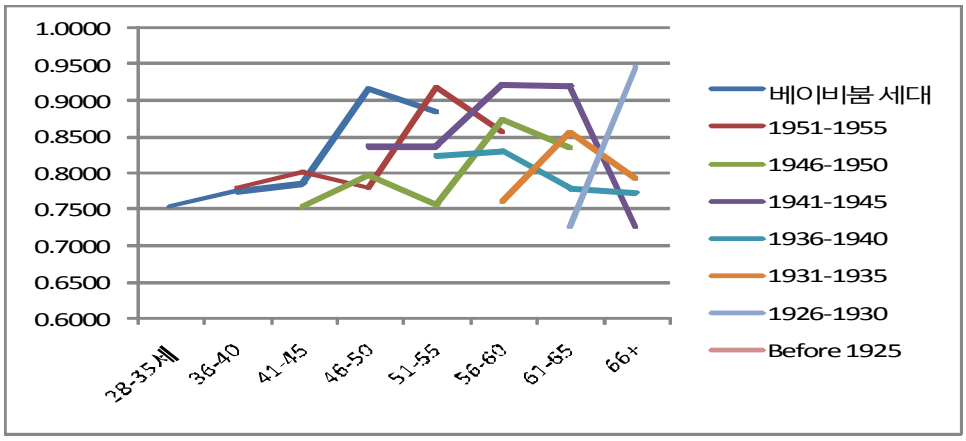
~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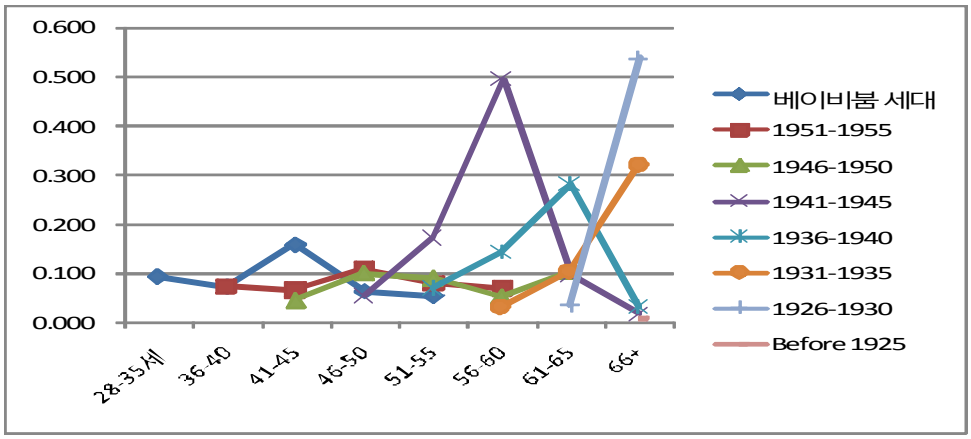

0.180
0.160
0.140
0.120
0.100
0.080
0.060
0.040
0.020
0.000
-0.020
-0.04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⑥

[3-20]


1.0000
0.9500
0.9000
0.8500
0.8000
0.7500
0.7000
0.6500
0.6000
28-35세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3-21]



< 3-51>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171

3

< 3-52>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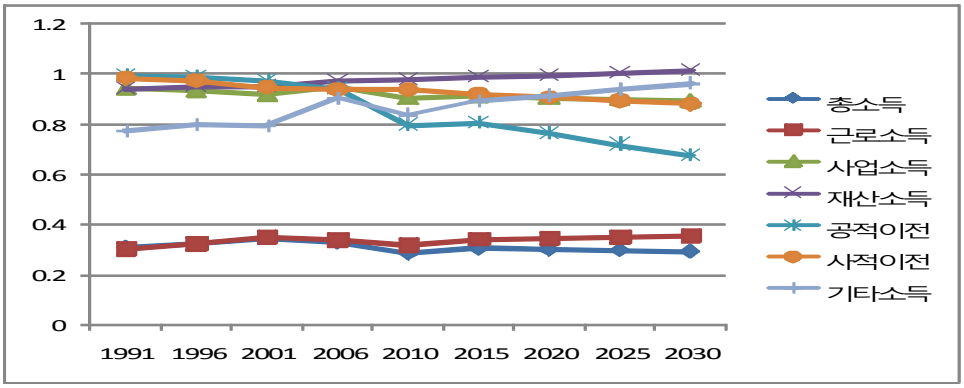
4.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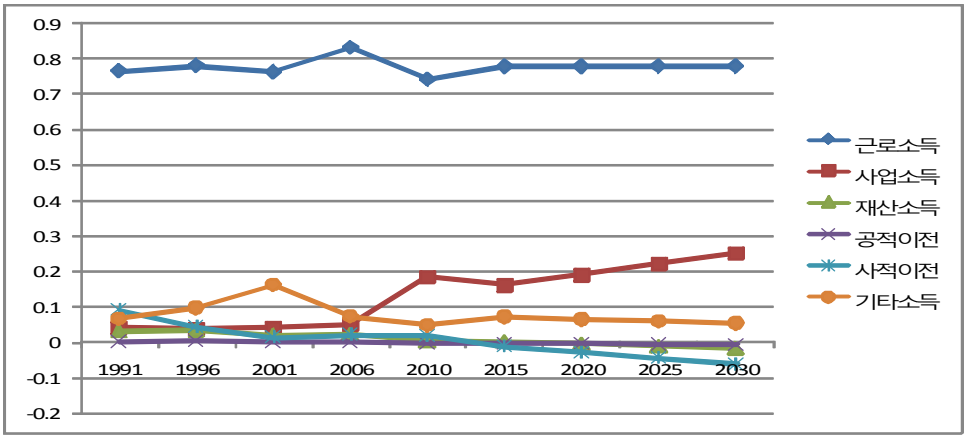
3

.

[3-22]


1.2
1
0.8
0.6
0.4
0.2
0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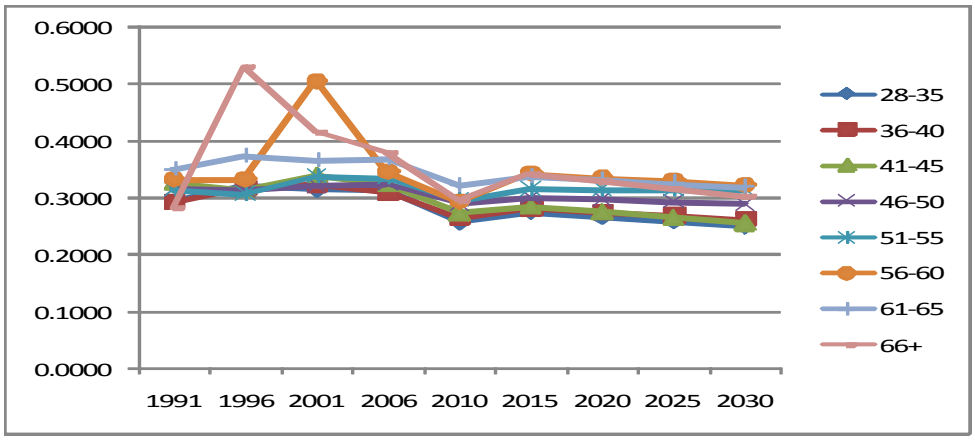
[3-23]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 3-53>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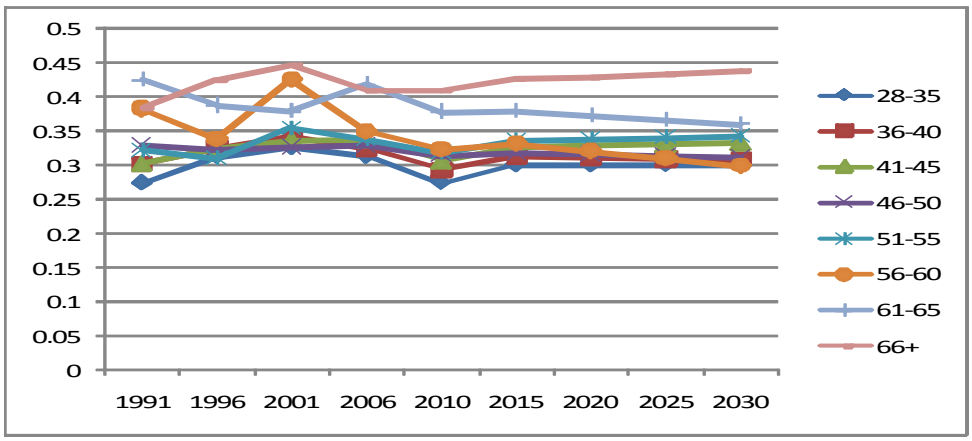


< 3-54>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①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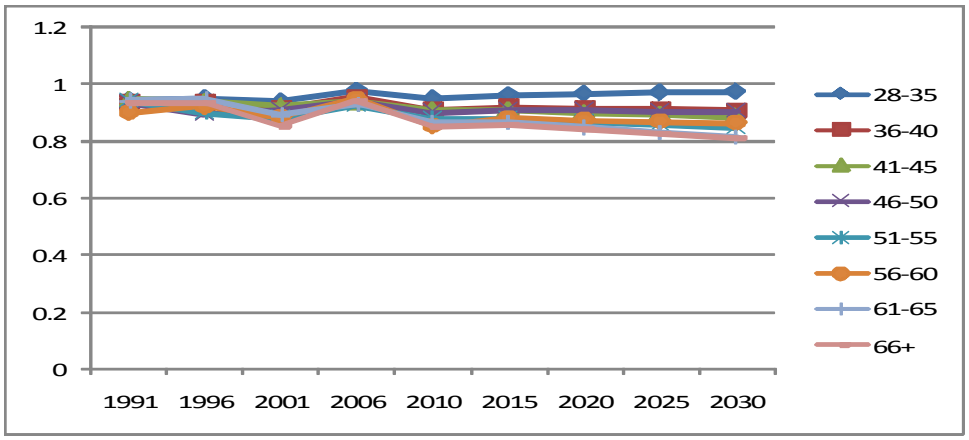
②

.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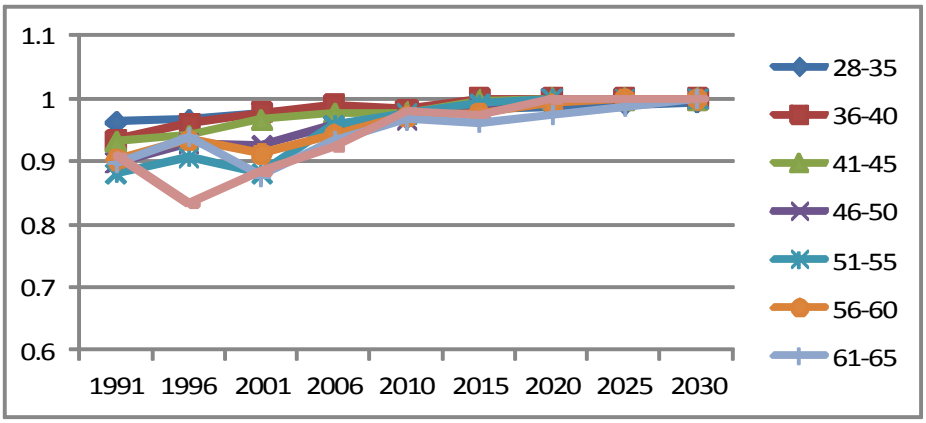
3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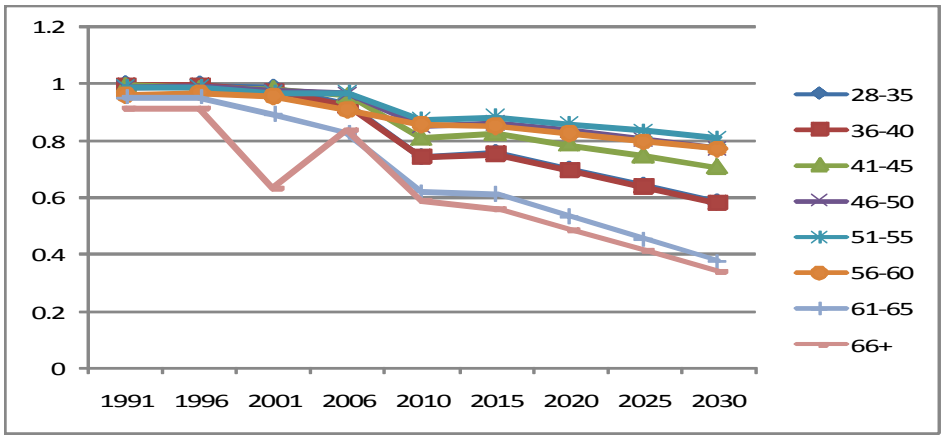
③

[3-27]


1.1
1
0.9
0.8
0.7
0.6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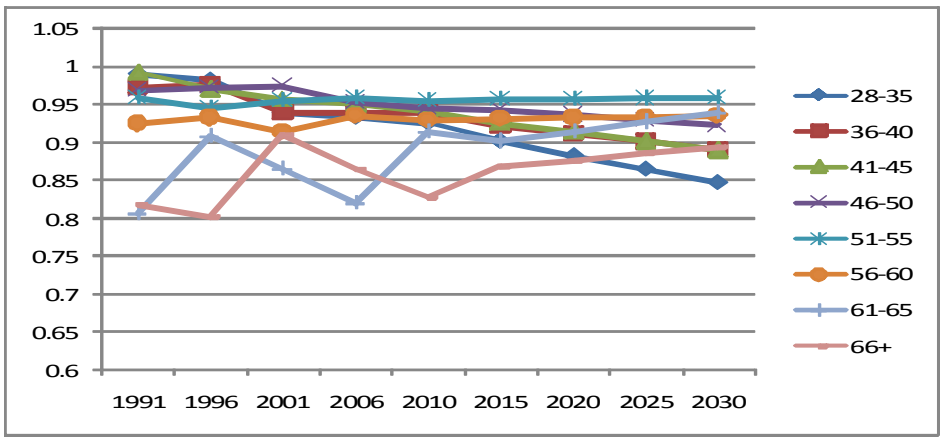
④

[3-28]


1.2
1
0.8
0.6
0.4
0.2
0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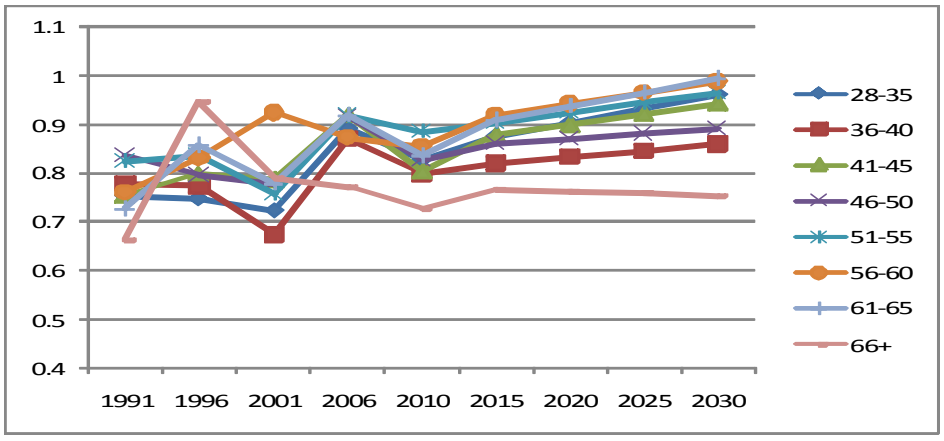
⑤

[3-29]


1.05
1
0.95
0.9
0.85
0.8
0.75
0.7
0.65
0.6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⑥

[3-30]


1.1
1
0.9
0.8
0.7
0.6
0.5
0.4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28-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5.

185

3

04

KIHASA

4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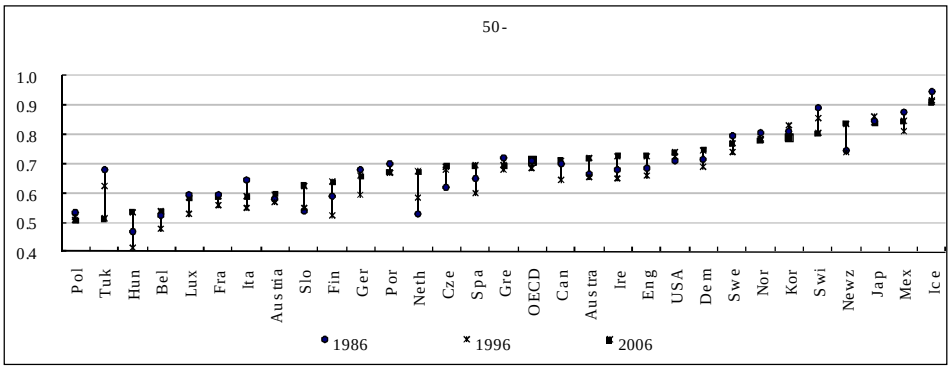
제1절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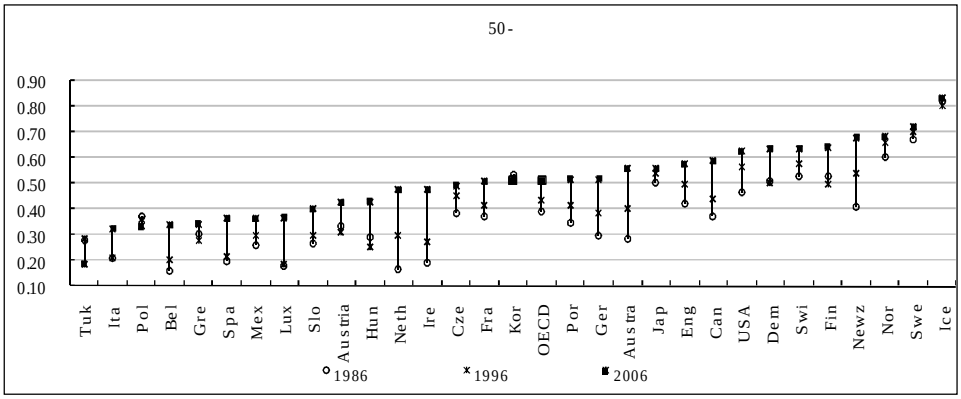
~

[4-1] OECD : 1986, 199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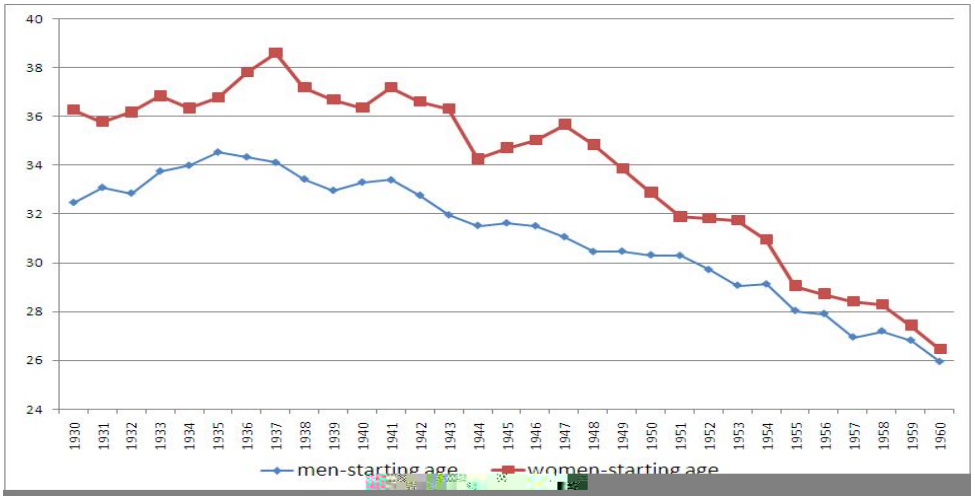
.

[4-2] OECD : 1986, 199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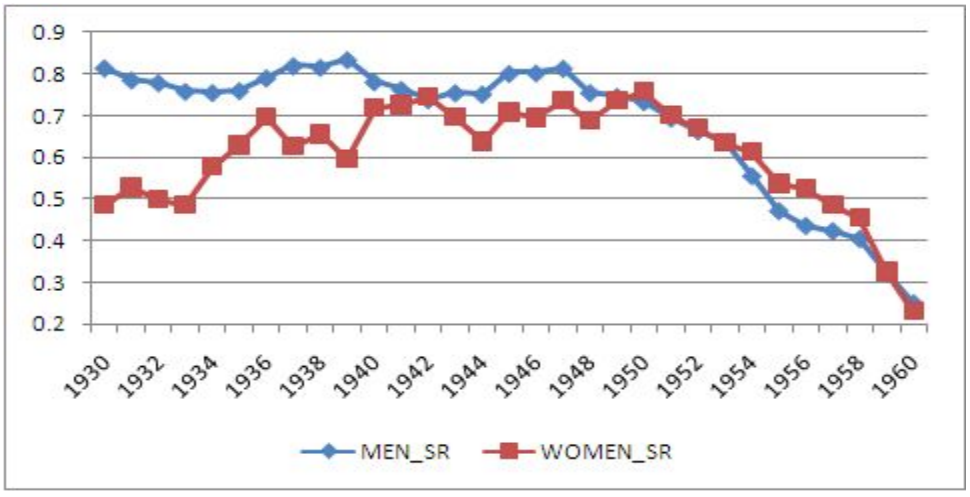


.

[4-3]


40
38
36
34
32
30
28
26
24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men-starting age
women-starting age

[4-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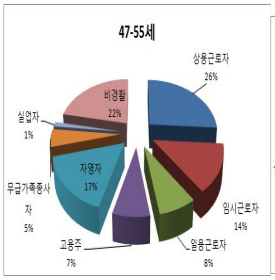

0.9
0.8
0.7
0.6
0.5
0.4
0.3
0.2
1930 1932 1934 1936 1938 1940 1942 1944 1946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MEN_SR
WOMEN_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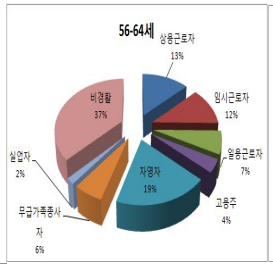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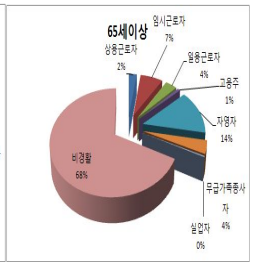
< 4-1>

		2000			2010		
		36~45 (1955~1964)	46~55 (1945~1954)	56 (~1944)	36~45 (1965~1974)	46~55 (1955~1964)	56 (~1954)
	/ /						
	/ /						

[4-5]


47-55세
상용근로자
26%
임시근로자
14%
일용근로자
8%
고용주
7%
무급가족종사자
5%
자영자
17%
실업자
1%
비경활
22%


56-64세
상용근로자
13%
임시근로자
12%
일용근로자
7%
고용주
4%
자영자
19%
무급가족종사자
6%
실업자
2%
비경활
37%


65세이상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7%
일용근로자
4%
고용주
1%
자영자
14%
무급가족종사자
4%
실업자
0%
비경활
68%

.

< 4-2>

< 4-3> ·

.

< 4-4> (2010)

		( )		(2)
( )				
(%)				

~

2. 5)6)

.

.

.

< 4-5>

			( )
2007			
2008			
2009			

< 4-6>

	2007	2008	2009

.

.

『 』

.

< 4-7>

. .

.

3. 7)

.

① ② ③

.

.

①

②　　③

④

< 4-8>

				.

.

4.

.

.

1)

)

. .

)

207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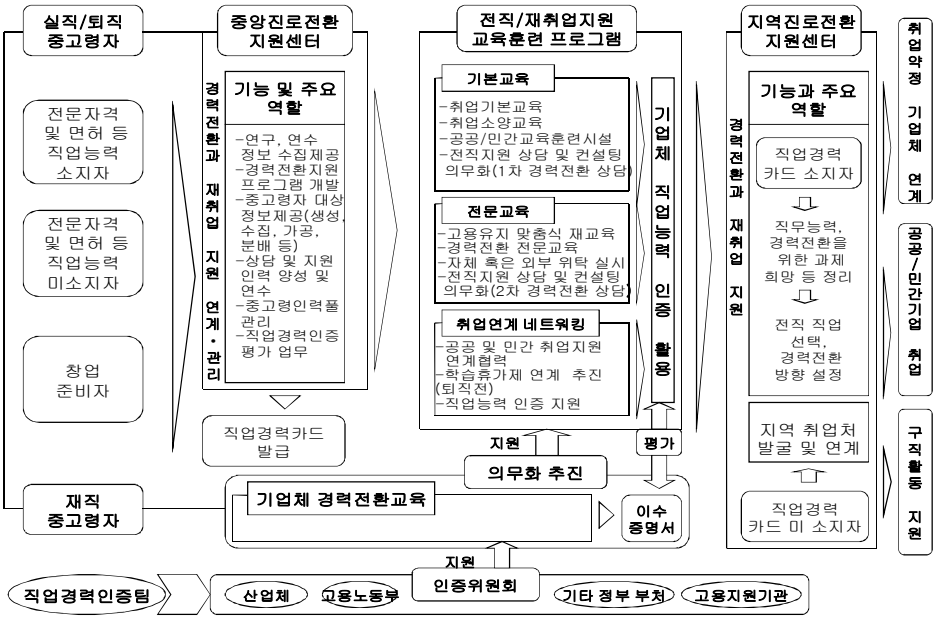
2)

)

.

.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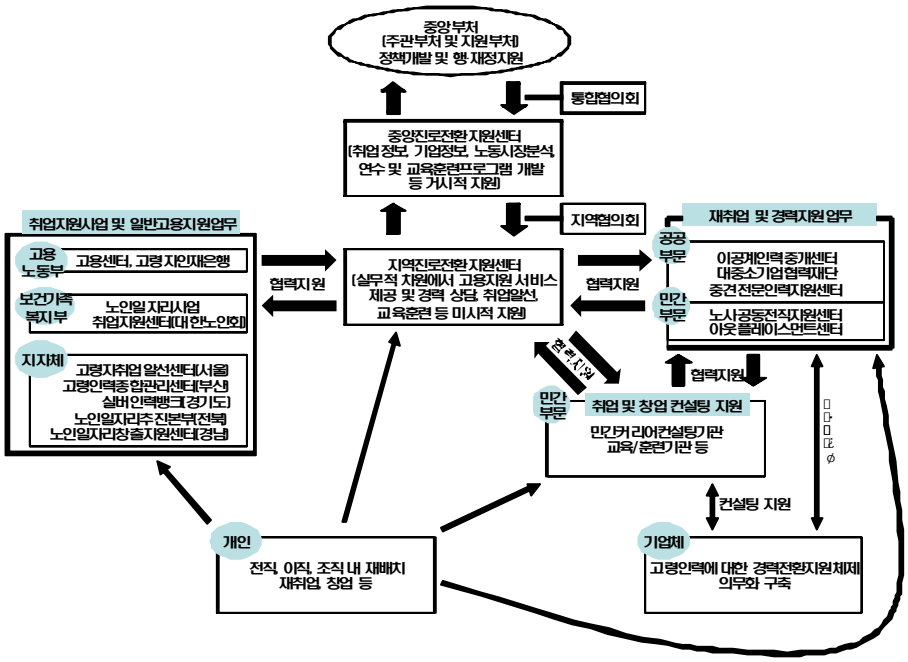

실직/퇴직 중고령자
전문자격 및 면허 등 직업능력 소지자
전문자격 및 면허 등 직업능력 미소지자
창업 준비자
재직 중고령자
중앙진로전환 지원센터
경력전환과 재취업 지원 연계·관리
기능 및 주요 역할
-연구, 연수 정보 수집제공
-경력전환지원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자 대상 정보제공(생성, 수집, 가공, 분배 등)
-상담 및 지원 인력 양성 및 연수
-중고령인력풀 관리
-직업경력인증 평가 업무
직업경력카드 발급
전직/재취업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본교육
-취업기본교육
-취업소양교육
-공공/민간교육훈련시설
-전직지원 상담 및 컨설팅 의무화(1차 경력전환 상담)
전문교육
-고용유지 맞춤식 재교육
-경력전환 전문교육
-자체 혹은 외부 위탁 실시
-전직지원 상담 및 컨설팅 의무화(2차 경력전환 상담)
취업연계 네트워킹
-공공 및 민간 취업지원 연계협력
-학습휴가제 연계 추진(퇴직전)
-직업능력 인증 지원
기업체 직업능력 인증 활용
지원
의무화 추진
평가
기업체 경력전환교육
이수 증명서
지원
지역진로전환 지원센터
경력전환과 재취업 지원
기능과 주요 역할
직업경력 카드 소지자
직무능력, 경력전환을 위한 과제 희망 등 정리
전직 직업 선택, 경력전환 방향 설정
지역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직업경력 카드 미 소지자
취업알선 기업체 연계
공공/민간기업 취업
구직활동 지원
직업경력인증팀
산업체
고용노동부
인증위원회
기타 정부 부처
고용지원기관

)

)

)

[4-7]


중앙부처
(주관부처 및 지원부처)
정책개발 및 행·재정지원
통합협의회
중앙지로전환 지원센터
(취업 정보, 기업정보, 노동시장분석,
연수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거시적 지원)
지역협의회
취업지원사업 및 일반고용지원업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취업지원센터(대한노인회)
지자체
고령자취업 알선센터(서울)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부산)
실버인력뱅크(경기도)
노인일자리추진본부(전북)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경남)
협력지원
지역전로전환 지원센터
(실무적 지원에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및 경력 상담,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미시적 지원)
협력지원
재취업 및 경력지원 업무
공공부문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견전문인력지원센터
민간부문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
협력지원
협력지원
민간부문
취업 및 창업 컨설팅 지원
민간커리어컨설팅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컨설팅 지원
개인
전직, 이직, 조직 내 재배치
재취업 창업 등
기업체
고령인력에 대한 경력전환지원체제
의무화 구축

)

.

)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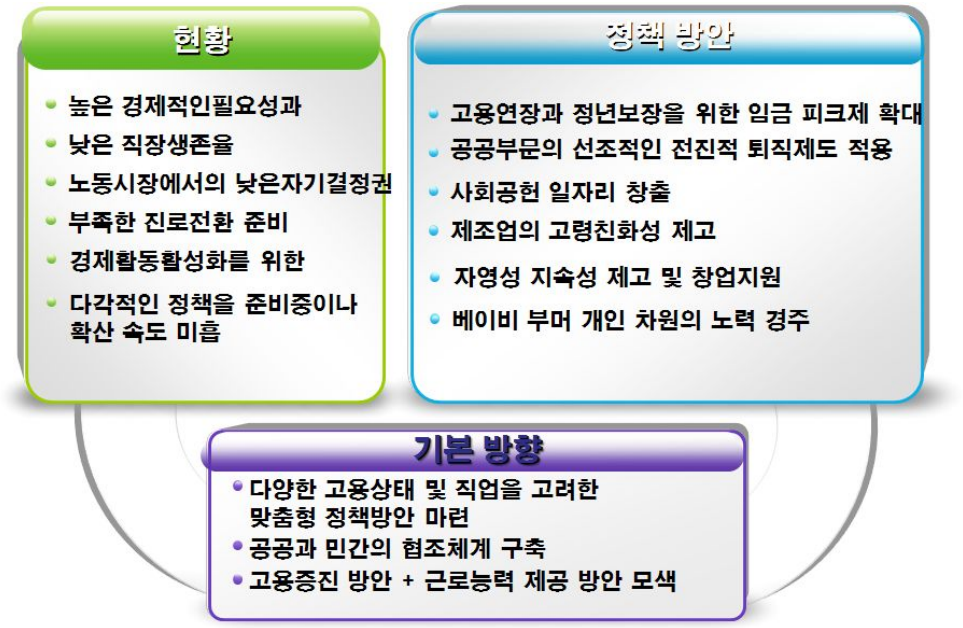
4)

5)

.

.

[4-8]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1.

.

.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의 특성 및 욕구를 하루 평균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여가의 목적과 여가불만족 이유 등으로 살펴보면서 더불어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의 제반 특성들과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도출되었다[11].

평일과 휴일 모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동일한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셋째, 베이비 부머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여가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반면에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넷째, 성별 여가활동 행태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지만, 남성(월 평균 약 22만 2천원)이 여성(월 평균 약 13만원)보다 약 9만2천원 더 많이 여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여가활동의 목적에도 성별 차이가 커, 남자는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베이비 부머는 현재의 예비노인이나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점이

베이비 부머가 여가활동을 하는 목적은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3%), 스트레스 해소(21.0%), 즐거움(20.0%), 건강(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인관계, 자기계발, 자기만족, 시간보내기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예비노인 세대나 노인세대는 여가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 건강(예비노인 26.9%, 노인세대 32.3%)으로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의 목적은 세대별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일과 관련된 여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퇴직 전으로 일 중

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는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 등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는 즐거움이나 건강을 위한 여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는 경제활동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현실에서 여가를 시간보내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4(5점 척도;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로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41.6%)이다. 경제적 부담은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시간 부족의 비율은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여가비용은 세대와 무관하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시간부족 문제는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

.

3.

.

1) [15]

.

. .

2)

~

3)

)

「 」

「 」

225

4

)

「 」

.

洲

4.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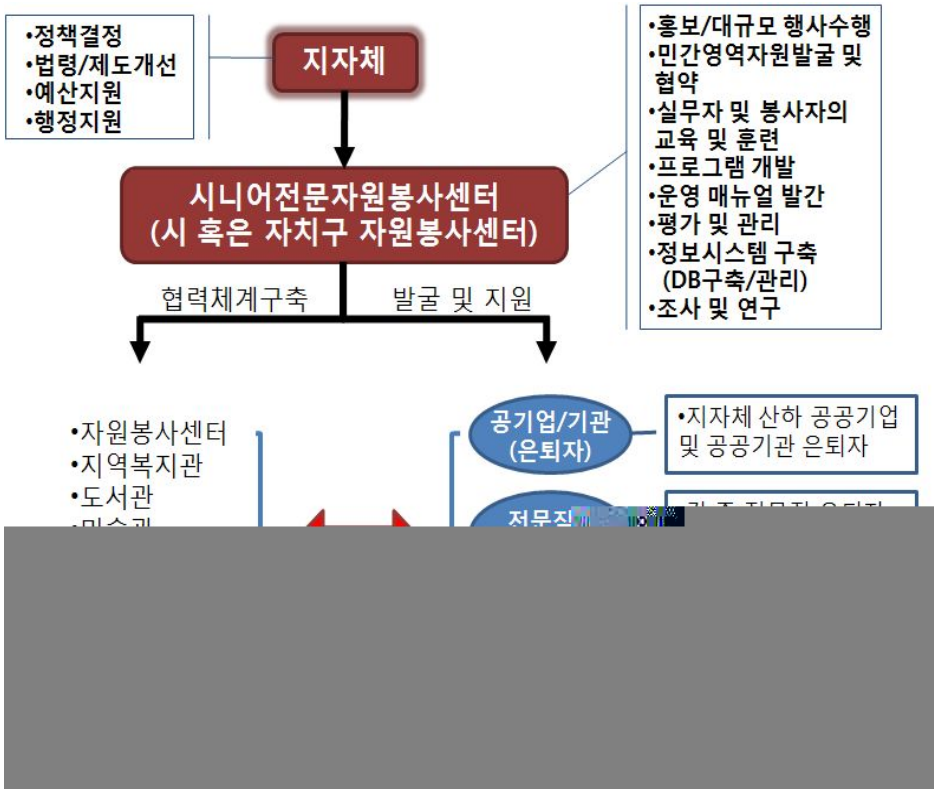
.

[4-9]

)

)

[4-10]


•정책결정
•법령/제도개선
•예산지원
•행정지원
지자체
시니어전문자원봉사센터
(시 혹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협력체계구축
발굴 및 지원
•홍보/대규모 행사수행
•민간영역자원발굴 및 협약
•실무자 및 봉사자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매뉴얼 발간
•평가 및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DB구축/관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센터
•지역복지관
•도서관
공기업/기관
(은퇴자)
•지자체 산하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 은퇴자

)

233

2)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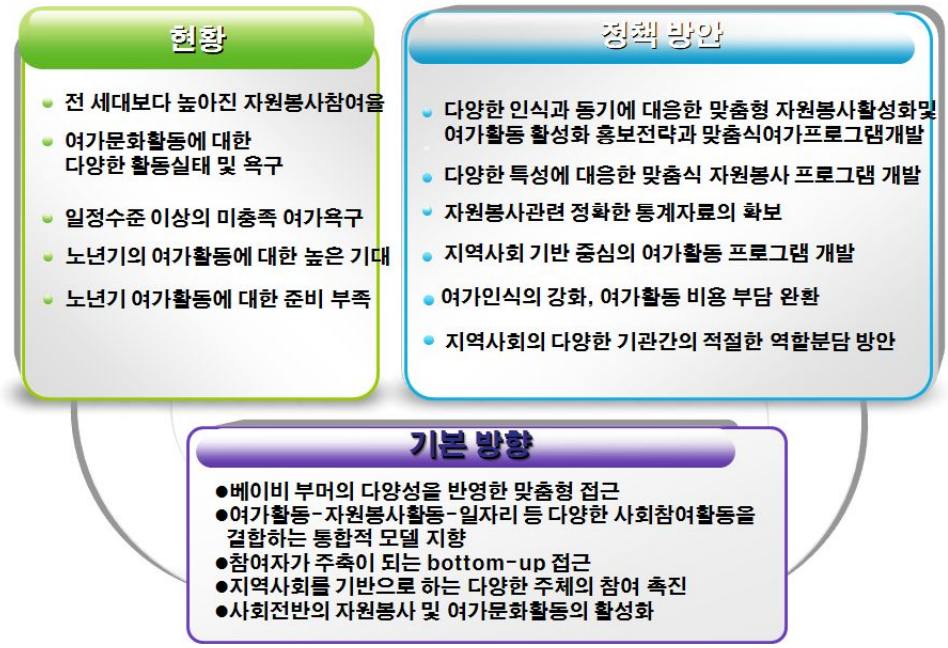
235

4

4)

5)

[4-11]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1. 19)

.

< 4-9>

		200	200~400	400~600	600	( )
		1	1~3	3~5	5	( )
			30%	30~60%	60~100%	100%

< 4-10> 10

< 4-11>

							( )

「

< 4-12>

				+	+	+ +	1)	

「 .

< 4-1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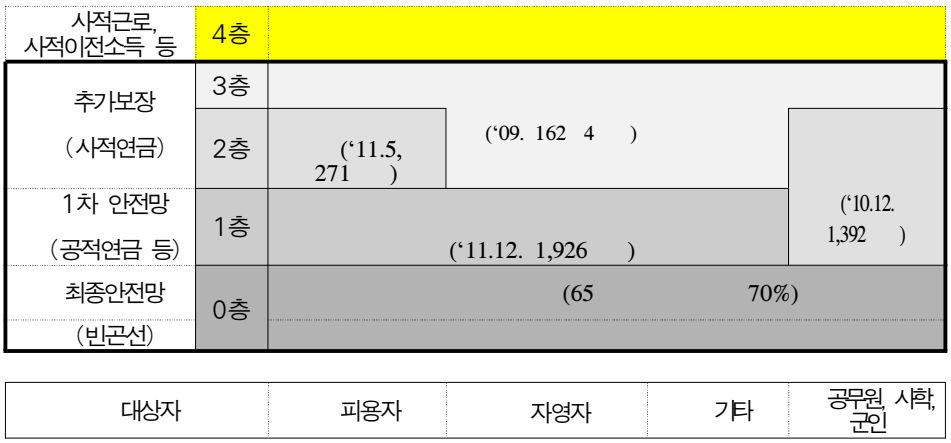
「 .

2. 20)

241

4

[4-12]


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2층
('11.5, 271)
('09. 162 4)
('10.12. 1,392)
1차 안전망
(공적연금 등)
1층
('11.12. 1,926)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65 70%)
대상자
피용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사학, 군인

3. 21)

.

~

.

.

.

4

4.

.

. 25)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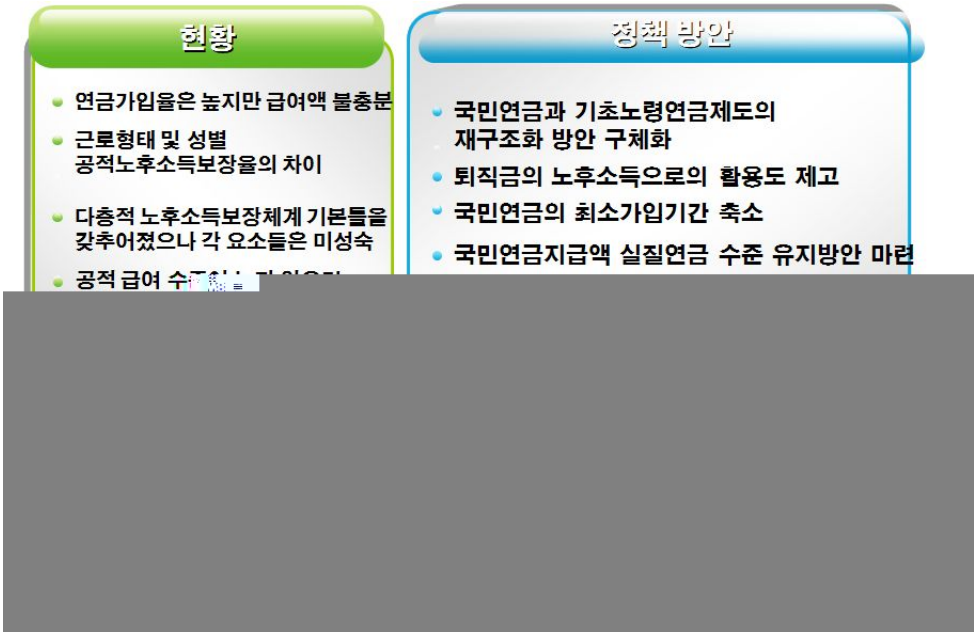
255

3)

4

4)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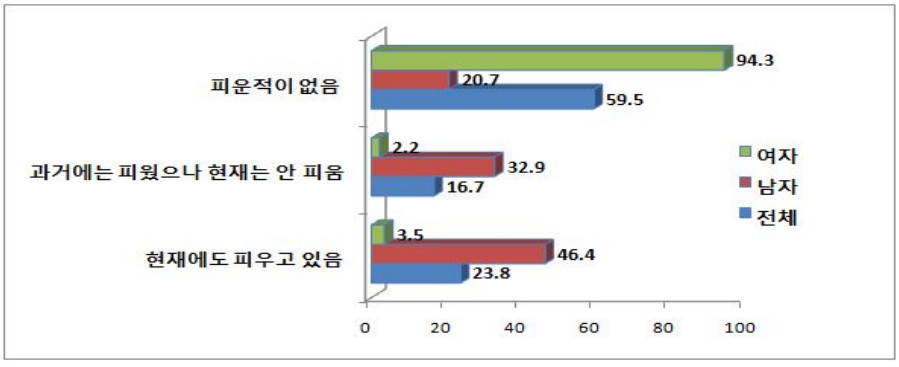

현황
연금가입율은 높지만 급여액 불충분
근로형태 및 성별
공적노후소득보장율의 차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기본틀을
갖추어졌으나 각 요소들은 미성숙
정책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구체화
퇴직금의 노후소득으로의 활용도 제고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축소
국민연금지급액 실질연금 수준 유지방안 마련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1. 27)

.

[4-14]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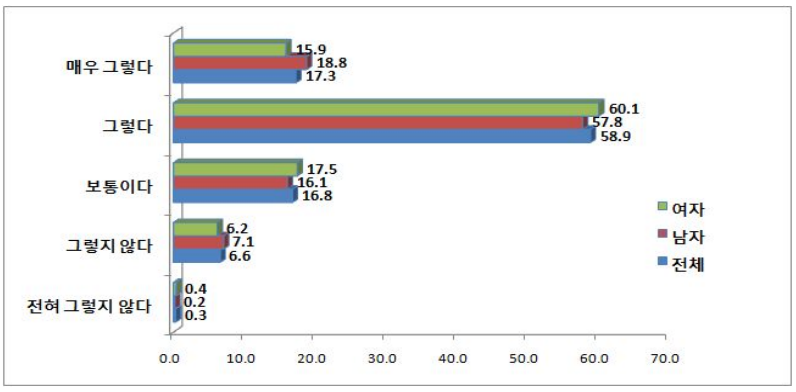
.

< 4-14>

( )									

「

[4-15] (2010, %)


매우 그렇다
15.9
18.8
17.3
그렇다
60.1
57.8
58.9
보통이다
17.5
16.1
16.8
그렇지 않다
6.2
7.1
6.6
전혀 그렇지 않다
0.4
0.2
0.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여자
남자
전체

.

< 4-15> : 45~49

.

< 4-16>

( )									

.

.

< 4-17>

( )									
u- ( )									

「 」

263

4

2. 28)

.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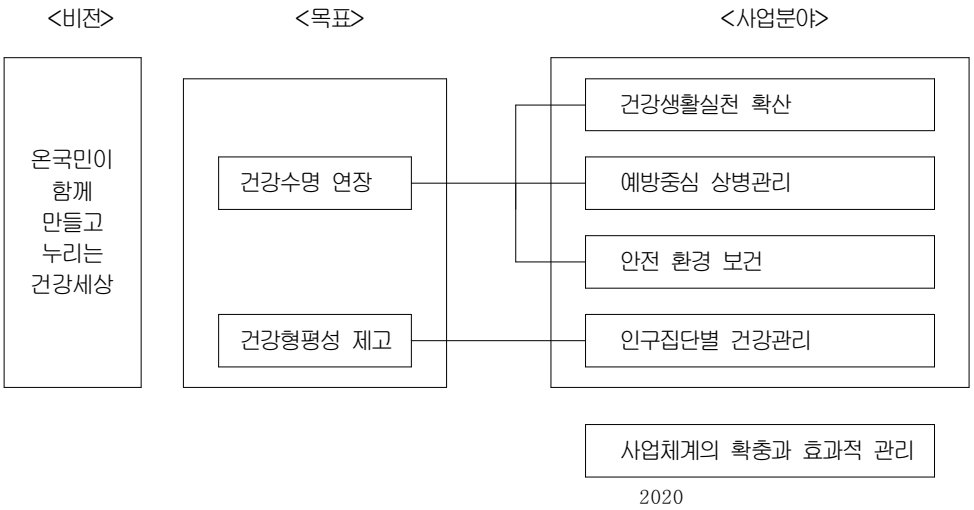
.

「 」

:

.

[4-16] Health Plan 2020



202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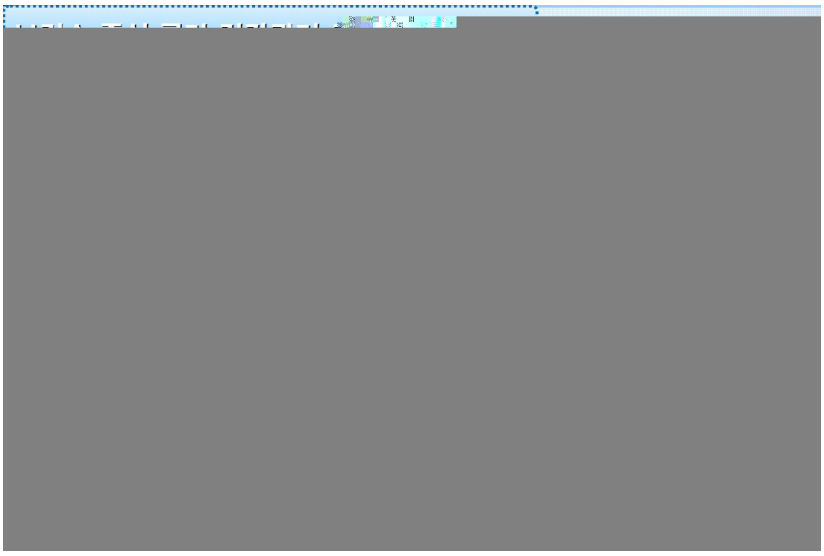
「　　」　　「　　」

」　　「　　」　　「　　」

~

.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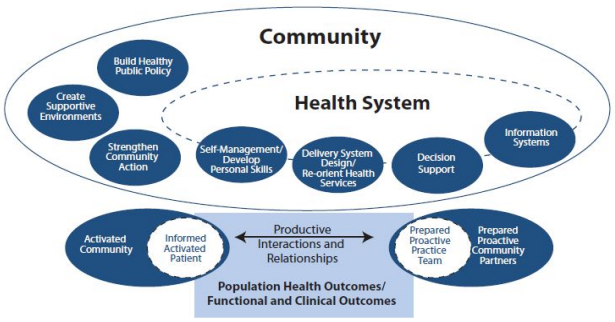
.

3. 30)

.

[4-18]

Figure 2. The Expanded Chronic Care Model: Integrating Population Health Promotion



Created by: Victoria Barr, Sylvia Robinson, Brenda Marin-Link, Lisa Underhill, Anita Dotts & Darlene Ravensdale (2002) Adapted from Glasgow, R., Orleans, C., Wagner, E., Curry, S., Solberg, L. (2001). "Does the Chronic Care Model also serve as a template for improving prevention?" *The Milbank Quarterly*, 79(4),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and Welfare Canada and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1986). Ottawa Charter of Health Promotion.

271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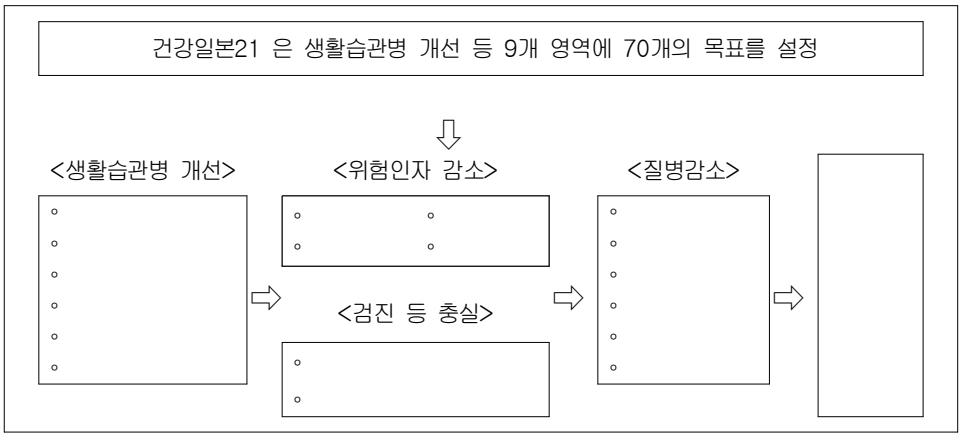
~

.

.

「 」

[4-19]「 21」


건강일본21 은 생활습관병 개선 등 9개 영역에 70개의 목표를 설정
<생활습관병 개선>
<위험인자 감소>
<검진 등 충실>
<질병감소>

2020

~

4. 31)

.

.

.

.

.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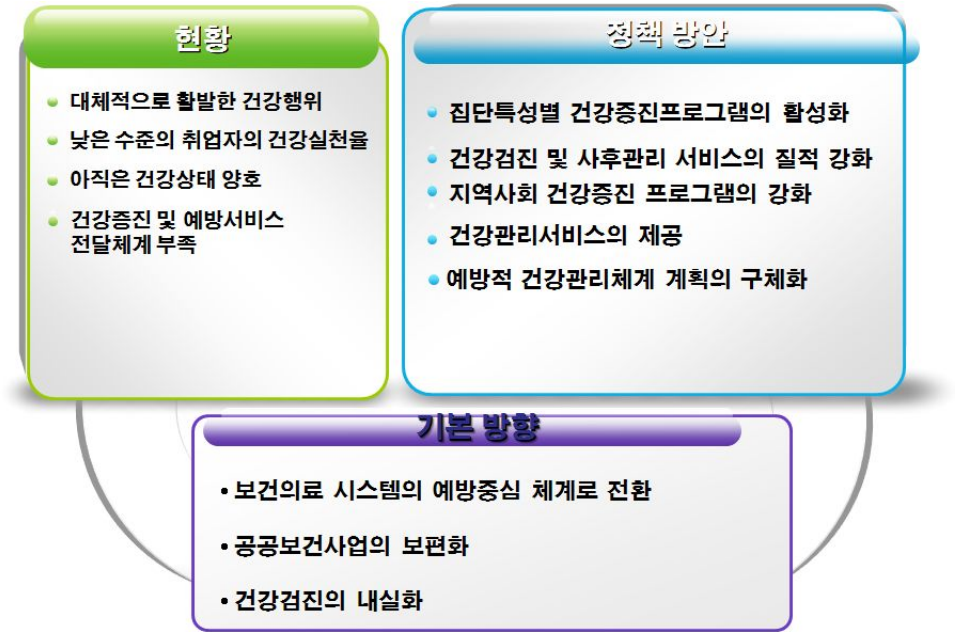
4

.

.

.

[4-20]



제5절 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

~

. (PIR, RIR)

< 4-18> PIR, RIR

.

< 4-19>

( )				
–				
·				
·				
–				
·				
–				
·				
·				
·				
–				
·				
·				

·

~

「 」

2.

.

.

[4-21]

(m²)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저
중
고
저
중
고
자가
차가
2008년
2013년
2018년
2023년

m² m²

.

< 4-21>

	.	
		.
		.
	.	
		. .

.

~

~

3. 33)

.

.

m^2

.

.

4.

.

.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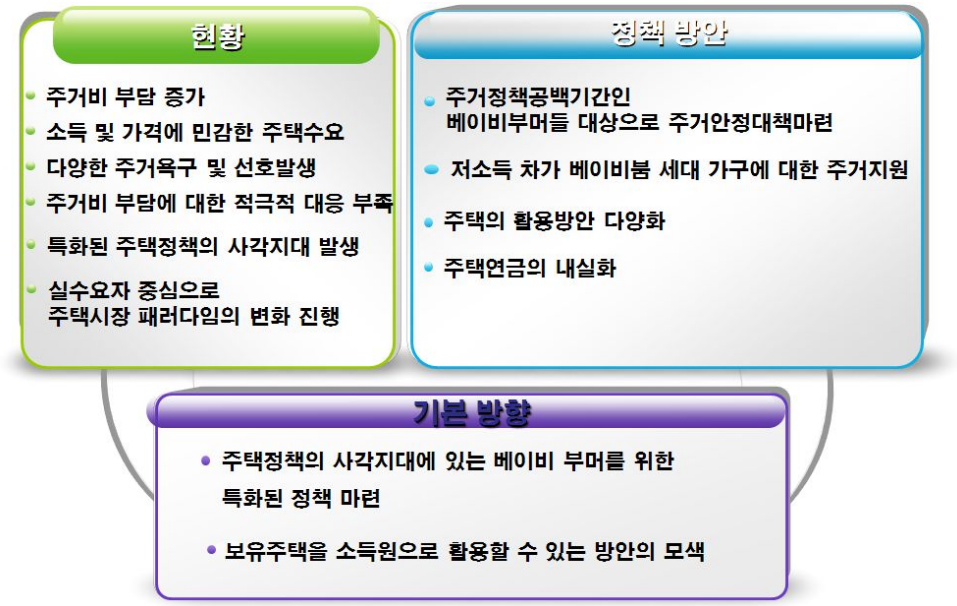
293

4

3)

4)

[4-22]



제6절 베이비 부머의 적절한 노년기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

1.

~

.

.

.

2.

.

.

< 4-22>

5 .

.

1)

「 」

. .

[4-23]

< 4-23>

		2008	2009	2010

.

< 4-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03

4

~

~

< 4-25>

3.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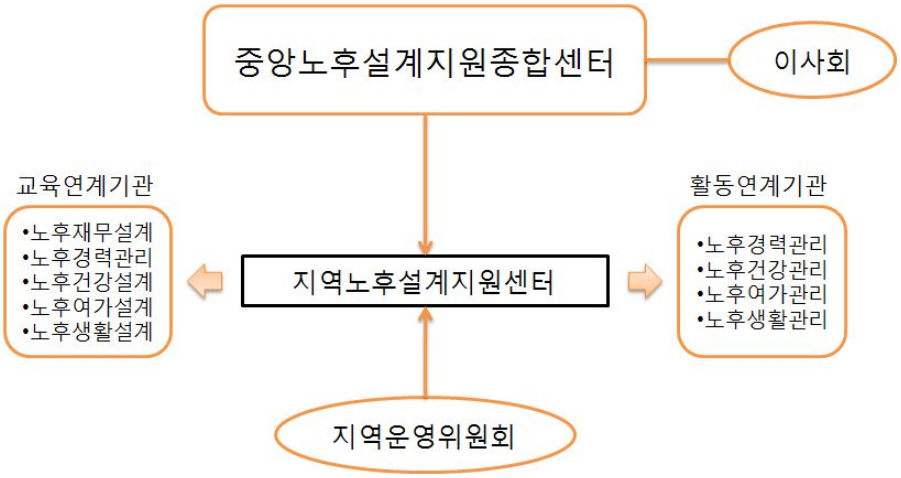
.

309

4

1)

[4-24]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
이사회
교육연계기관
•노후재무설계
•노후경력관리
•노후건강설계
•노후여가설계
•노후생활설계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활동연계기관
•노후경력관리
•노후건강관리
•노후여가관리
•노후생활관리
지역운영위원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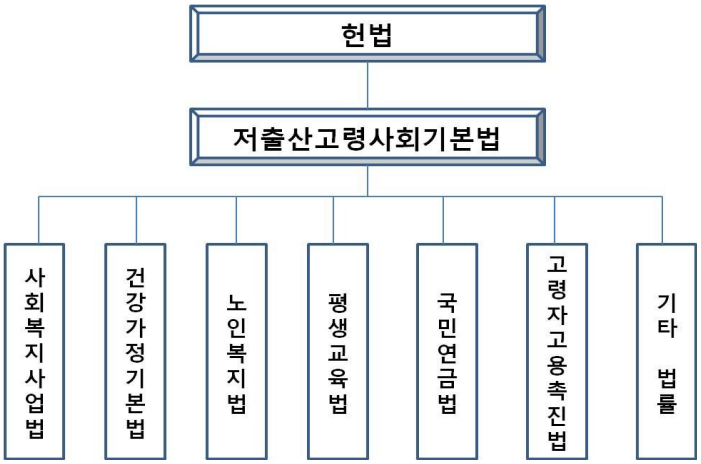
3)

3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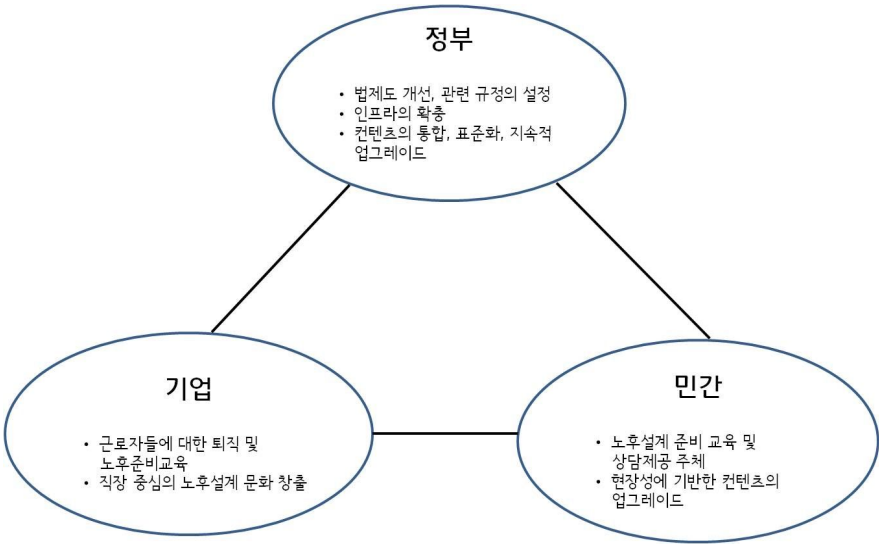
4)

[4-25]


헌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노인복지법
평생교육법
국민연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기타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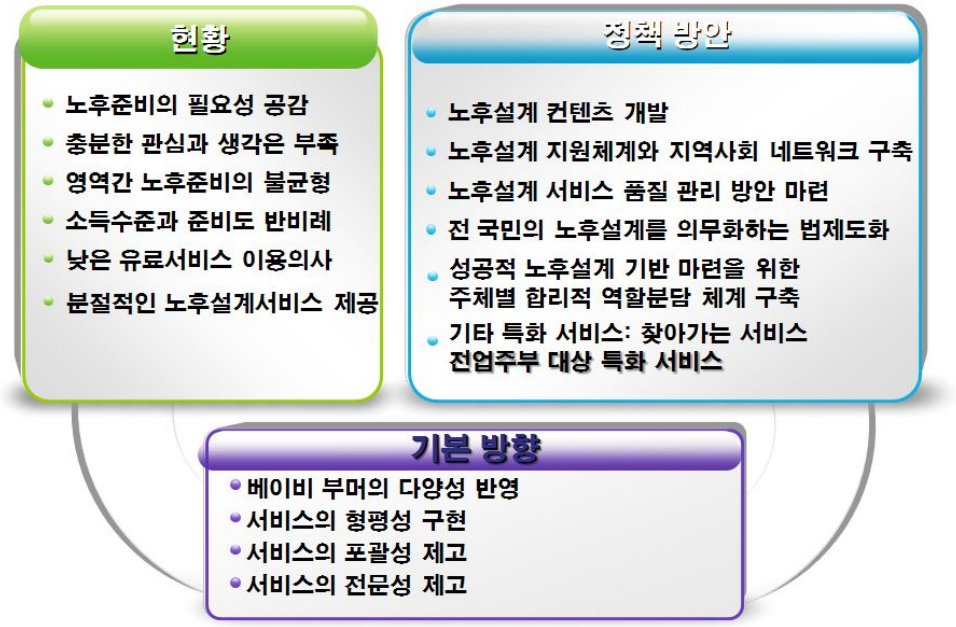
5)

[4-26]


정부
• 법제도 개선, 관련 규정의 설정
• 인프라의 확충
• 컨텐츠의 통합, 표준화, 지속적 업그레이드
기업
•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및 노후준비교육
• 직장 중심의 노후설계 문화 창출
민간
• 노후설계 준비 교육 및 상담제공 주체
• 현장성에 기반한 컨텐츠의 업그레이드

6)

[4-27]



제7절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1.

2.

.

317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19

「

」

4

.

320

2)

3.

.

43)

「 」

.

~

327

4.

4

.

.

< 4-27>

산업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중고령 전문 인력 파견업	은퇴 후에도 해당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파견업무 희망함	<미국> 약 $800억 <일본> 약$400억 추산.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한번도 2%대를 넘은 적이 없으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점유율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장점이나 정규직과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	<유럽> 1990년대 중장년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이전과 자리회전 모델 실시 <일본> 대표적 파견업체인 '파소나' 2,369억 엔 매출('08년)
재취업 관련 교육서비스 산업	중고령층 퇴직가의 재취업 관련 서비스를 원함	많은 선진국에서 실직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등 정부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제공함	복지적 측면이 강해 국가가 실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뉴딜 50플러스'라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제도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함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낌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싶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낌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유럽>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관리 자문업이 한국에 비해 많이 발달한 상황임	2020년: 185,241억 원	소유자산의 불균형이 나타남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함 (낮은 금융자산 + 높은 실물자산) 부동산을 통한 소득창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음	<미국> 은행,증권사,뮤츄얼 펀드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및 Life cycle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며 노후에 대비함

건강관리서비스산업	고령화로 인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 프로그램의 필요성 느낌	<미국> 2010년: $57억 2015년: $33억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시 시장규모: 약2조원(2014년) 3만8천명 일자리 창출 예상됨	'건강주의군'에게 영양, 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	<일본> 2008년 정부 주도로 시작, 현재 3042개 병원, 의원과 139개 전문관리회사가 보건지도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적극 도움
유웰니스(u-wellness)산업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싶어함	2011년: $1,071억 2013년: $1,487억	2011년: 2,100억 원 2013년: 1조6,814억 원	국내업계의 관심은 증가추세이나 성공사례가 없어 시장창출 지연됨	나이키와 애플의 NIKE+iPOD Sport Kit'
항노화산업	자신의 외모, Well-being,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비교적 관심이 많음 치료목적의 항노화 제품뿐만 아니라, 외모관리 서비스로서의 항노화 서비스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	<미국,유럽, 일본> 매년8.9%급 성장할것으로예상됨 2008년: $1,612억 2010년: $1,895억 2015년: $2,919억	2020년: 9,000억 원 2020년: 27조원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임 항노화 식품의 경우(세계시장의 0.5%차지) 산업의 발전 미약함	<미국,유럽, 일본> 항노화서비스가 예방, 진단,관리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발전 <프랑스,독일,일본> 일반화 되어있는 수(水)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함
여가 및 관광산업	은퇴 후 고령자를 위한 관광레저·스포츠 산업	OECD국가들은 GDP의 3%~9%를 여가비용으로 사용	2006년: 총 여가산업규모 71조 3천여억 원	여가용품, 여가공간, 여가서비스 등 여가활동에 대응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미국의 '엘더호스텔'은 55세 이상 노인에게 교육과 여행서비스를 제공, 유스호스텔의 고령자판
실버주거	중산층도 고려한 고령자 주택 등	중장년층의 급격한	2010년: 26,778억원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일본> 고령자용 임대

지 및 주택 등 쾌적한 생활 공간 관련 산업	다양한 고령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느낌	증가는 임대보다는 자가 소유주택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고령자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임	2020년: 75,045억 원 ※주택개조 시장 2010년: 478억 원 2020년: 2,386억 원 ※실비(임대) 고령자 주택공급시장 2010년: 9,840억 원 2020년: 8,933억 원	자산상황에 따라 잠재수요의 폭이 넓어 비즈니스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시장의 미성숙으로 고령친화주택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함	주택에서 주택안전Repair 서비스, 사고방지 Total서비스에 이르는 폭넓은 시장이 형성되었음 <미국, 일본>민간이 고령친화주택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유헬스 (u-Health) 서비스 산업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베이비 부머들은 의료비절감의 필요성을 느낌	2007년: $1,058억 2009년: $1,434억 2011년: $1,893억 2013년: $2,540억 연평균 15.7% 증가 ※홈&모바일 헬스케어시장 2010년: $57억 2015년: $336억	※만성질환자의 u-Health 시장규모 2012년 고혈압 환자 : 6,926억 원 2012년 당뇨환자 : 2,741억 원 총: 약 2조 원(추정치)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여, 표준화 및 법· 제도가 미진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수준임. u-Health의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 임.	<미국> 만성질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홈&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한된 예산을 받는 노인 보호시설에 널리 보급함
의료기기 산업(노인 생활 편의기기 중심) 산업	영상진단, 치과용, 의료용 소모품 이외도 노인생활 편의성 중심의 기기수요 증대	2009년: $2,215억 2012년: $2,660억	2009년: 3.6조 원 연평균 13% 성장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수준	<EU> 의료기기 S/W검증 의무화('10.10) <미국> IEC의 강화된 성능심사기준 적용 예정('12.6 시행)

건강 기능 식품 산업	고령화로 인한 생체기능 저하를 막고 질병발생 위험을 감소하며 건강유지욕구 크게 확대	2008년: $2,798억 연평균 8.2%성장	2010년: 약 2조 원 연평균 10%이상 성장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초기 성숙기로 접어들었음	<미국> 1994년 건강기능식품 건강 및 교육법 제정으로 국가지원정책과 의회의 특별예산 지원
노인 장기 요양 관련 시설, 용품 및 기기, 서비스 산업	급속한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에도 건강하며,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증가함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함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이라는 가격적인 요소 이외에도 높은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도 고려함	중국,인도 등의 고령화가 진행 될 경우, 거대규모의 고령친화제품시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비율을 65세 이상 노인의 14.8%로 잡을 경우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명 (추정치)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시장규모 2010년: 4조 9천 억 원 2020년: 9조3,661억 원 ※시설요양 서비스 2010년: 7,006억 원 2020년: 42,293억 원 ※재가요양 서비스 2010년: 12,774억 원 2020년: 80,887억 원	고령친화용품 제조·유통하는 기업의 평균 자본금이 1억 300만원에 불과할 만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었음 실버용품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생산 및 유통체계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부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노인복지용품이 혼동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이 필요함	<영국> 커뮤니티케어법을 통해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로서 확립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 중고령 친화산업이 3배 이상 성장함. <일본> 고령친화제품 대여, 가정도우미서비스 시설 등 의료서비스 업체가 활성화 되어있음 시설요양보다는 재가요양을 장려함 <서유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재정조달과는 무관하게 나타남

1)

「 」

水

2) R&D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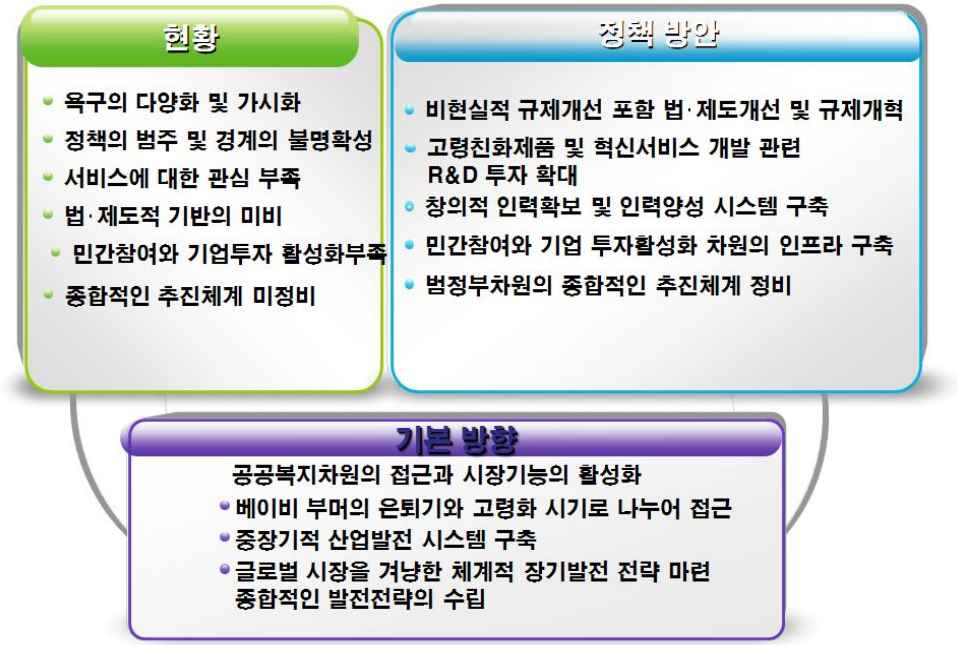
335

4

4)

5)

[4-28]


현황
욕구의 다양화 및 가시화
정책의 범주 및 경계의 불명확성
서비스에 대한 관심 부족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민간참여와 기업투자 활성화부족
종합적인 추진체계 미정비
정책 방안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R&D 투자 확대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
기본 방향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베이비 부머의 은퇴기와 고령화 시기로 나누어 접근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체계적 장기발전 전략 마련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수립

05

KIHA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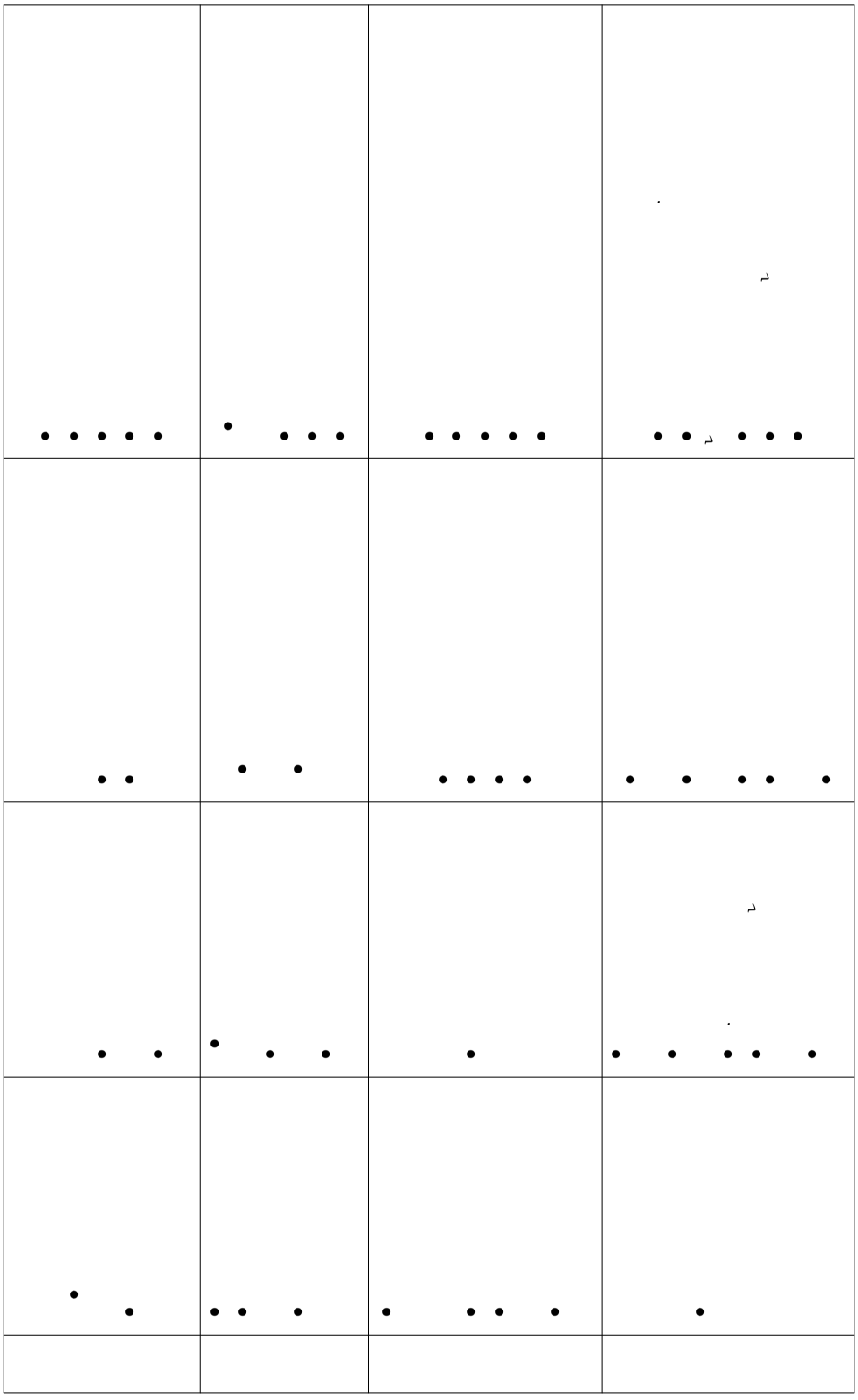
5

『 』

.

< 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연구(20)

경제발전연구,

9(1),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0)

공공경제, 12(2)

사회보

장연구, 25(2)

공공경제, 12(2

경제학연구, 56(3)

한국지

적정보학회지, 11(2).

사회복지연구, 34(가을호)

한국노년학, 28(3) ※

사회복지정책, 32(0).

.

재정학연구, 1(3).

※

대한가정학

회지, 29(1),

노인복지연구, 51(0).

경제학 연구, 51(4)

경제학연구, 53(4)

경제학연구,

55(3)

보건사회연구, 31(2)

소비문화연구, 10(4).

한국사회경제학회, 19(),

사회보장연구, 26(1),

가족과 문화, 17(1)

경제연구, 23(3),

한국사회학, 35(6).

동경제론집, 23(2),

사회보장연구,

27(2).

.

.

한국노년학, 29(4)

경제발전연구, 1(0),

한국노년학, 30(2),

노동경제

논집, 22(2)

노인복지정책연구,

11(0).

· ·

사회보장연

구, 23(1).

·

·

사회보장연
구, 23(4),
한국생
활과학회지, 16(3)

국제경제연구, 7(2),

노인
복지연구, 52(0).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사회보장연구,
23(3),
경제학 연구, 49(3),

사회복지연구, 42(1).

한국

사회복지학, 59(1)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14(1)

한국

노년학, 22(3),

.

재정정책논집, 7( )

소비문

화연구, 6(3),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53)

Manpower Education Institute.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1(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pulation Bulletin 46(3)

Journal of Gerontology, 39,

Journal of Gerontology, 38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European Economic Review, 43,

AFA Presidential Address

Demography, 36(2), pp.

Russell Saga Foundation.

Economica, 73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Russell Saga

Foundation.

Generations, 10

Family Relations, 37(4)

Journal of Economic Perpectives,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50

Brookings Institution

Russell Saga

Foundation.

Family Relations, 50(3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Demography, 32(3),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Brookings Institution Press and Russel Sage Foundation

Dartmouth College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Social Work, 26,

Journal of Labor Economics, 6,

The Economic Journal, 92(368),

Russell Saga Foundation.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8(1),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

Gerontologist, 17

Family Coordinator, 2

Journal of Minority Aging, 5,

Gerontologist 17. pp.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82

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p.

KIHASA

부록 1 포럼 위원 명단